

연구총서 2001-11

•

『김정일선집』 분석

이 교 덕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명실공히 김정일 시대가 되면서 『김정일선집』의 문헌은 북한의 언론매체뿐 아니라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될 자료의 하나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북한의 1차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정일선집』의 문헌을 소개하는 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일선집』을 해제함으로써 북한연구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김정일선집』을 활용하려는 북한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김정일선집』의 출판배경

북한에서 김정일의 논문이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김정일의 논문이 1982년에 처음 출판된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의 사상가적 자질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민중의 추대에 기초하고 새 세대 인물 가운데서 수령생존시에 인물본위로 후계자를 선출한다는 후계자 선출에서의 세 가지 세칙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고 한다. 후계자를 인물본위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인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덕목으로 비범한 예지, 고매한 덕성, 탁월한 영도력을 강조했는데, 김정일 저작의 출판사업은 그가 이 모두를 겸비한 인물임을 선전하기 위한 필수수단이다.

일단 훌륭한 저작이 많다는 것은 ‘비범한 예지’를 소유한 지성적 인

몰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욱이 그 저작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문예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정책제시라면 그것들은 저자의 ‘고매한 덕성’과 ‘탁월한 영도력’을 과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북한에서 발행한 김정일 관련 서적들은 김정일 명의의 논문이나 저작, 그의 전기, 화보·사진집, 개별 저작에 대한 해설서 등이다. 김정일의 논문이나 저술을 묶은 『선집』, 『저작집』, 『부문별 저작집』의 경우 1986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에 이어, 1987년에는 처음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이 네 권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1964년부터 1982년까지 김정일이 한 담화, 결론, 연설 등 총 108편의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다.

1980년 김정일이 공식후계자로 선출되면서 시작된 그의 저작 출판을 통한 선전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 김일성이 정치무대 전면에서 점차 물러나고 그 공간을 김정일이 대체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어 1992년 『김정일선집』의 출판으로 절정을 이룬다. 북한은 김정일의 50회 생일기념으로 이 해 2월 14일 최초로 전집류 형태인 『선집』 1권을 출판함으로써 김정일저작이 출판된 이래 정확히 10년만에 김일성의 경우처럼 김정일저작의 본격적인 체계화작업에 착수했다.

2. 『김정일선집』의 구성과 특징

현재 『선집』은 14권까지 출판되어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1964년 4월 2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한 담화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시작으로 1999년 9월 2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

이자"가 가장 최근의 저술로 수록되어 있다. 『선집』 14권이 포괄하고 있는 시대의 범위는 35년여에 이르며 전체 수록된 문헌은 338편, 모두 7,050쪽이다.

1권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4월부터 1969년 9월까지 발표한 46편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문헌들에 대해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의 위업을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대백과전서”라고 극찬했다. 이듬해인 1993년 1월에는 제2권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1970년 1월부터 1972년 11월 사이에 발표한 문헌 29편이 수록되어 있다.

1994년에 출판된 『선집』 제3권에는 김정일이 1973년 1월부터 12월까지 행한 연설, 결론, 담화 등 11편의 문헌이, 제4권에는 197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한 연설, 결론, 담화 등 17편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제5권에는 1975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발표한 33편의 문헌이, 제6권에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발표한 38편의 문헌이 실려있다. 제7권에는 1981년 3월 8일부터 1983년 5월 3일까지의 기간에 발표한 연설, 결론, 논문, 담화 등 23편의 문헌이 들어있고, 제8권에는 1984년 2월 16일부터 1986년 11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발표한 28편의 연설, 서한, 담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9권에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에 한 연설과 담화를 비롯한 18편의 문헌이, 제10권에는 1990년에 발표한 15편의 문헌이, 제11권에는 199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행한 연설과 서한을 비롯한 8편의 문헌이, 제12권에는 1991년 8월부터 1992년 1월 사이에 발표한 7편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1998년에 출판된 제13권에는 1992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발표한 27편의 문헌이 실려있고 1995년부터 1999년 9월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 있는 제14권에는 모두 38편의 문헌이 들어있다.

「선집」의 구성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정일선집」의 구성

권수	포괄시기	문헌수	쪽수	출판사	출판년도
1	1964-1969	46	49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1970. 1 - 1972. 11	29	42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	1973	11	50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	1974	17	57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	1975-1977	33	49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6	1978-1980	38	47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7	1981-1983	23	46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8	1984-1986	28	49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9	1987-1989	18	46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0	1990	15	510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1	1991.1 - 1991.7	8	58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2	1991.8 - 1992.1	7	59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3	1992.2 - 1994.12	27	49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4	1995-1999	38	480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선집」에서의 시기구분은 각 권의 분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집」에 실린 문헌의 종류는 연설, 담화, 결론, 대답, 서한, 논문, 축하문, 감사문, 명령이다. 수집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4권의 17편 문헌을 제외한 총 321편 가운데 대부분은 담화문이다. 담화 이외의 것으로는 연설이 76편, 결론 6편, 대답 3편, 서한 37편, 축하문 4편, 감사문 1편, 논문 17편, 명령 1편이다.

연설, 담화, 결론은 주로 당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이나 문예, 교

육, 언론, 군사, 외교 등의 각 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 연설이
 나 대화를 기록한 것이고 서한은 각 분야의 주요 대회 참가자들이나
 조직창립 기념일에 맞춰 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축사 성
 격의 것이다. 논문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혁
 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와 같이 특정 시
 기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원칙을 천명한 것이나 “영화예술
 론”,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주체문학론” 등처럼 어떤 주제를 이
 론적으로 상세히 논의한 것이 있다. 감사문은 김일성 사망시 조의를
 표시한 북한 주민들에게 1994년 10월 28일 보낸 “위대한 수령 김일
 성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준 전체 인민들에게”
 가 유일하고 축하문은 어떤 분야의 업적을 치하하는 글이며 대답은
 어떤 문제에 관해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서, 예를 들면 9권에 수록된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

김정일은 대중앞에 나서 연설하기를 꺼린다는 소문과 다소 다르게
 『선집』에 실린 문헌 가운데는 상당수의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시
 기로 보면 60년대 말까지는 매년 한 번 정도로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
 으나 71년부터는 연설이 크게 늘어나 7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는 대
 부분의 문헌이 연설문일 정도이다. 이 시기가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
 대되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때였
 다는 것을 상기하면 연설문의 증가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80년대에 들어오면 연설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문헌의 성격이 서
 한과 논문, 축하문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서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면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
 지 못하고 서한으로 대체해야 할 정도로 활동반경이 대폭 늘어난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문헌주제 분석

「선집」에 수록된 문헌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이는 「선집」 출판의 목적이 김정일을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지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다. 즉 「선집」에는 각 분야에 관해 발표된 김정일의 문헌을 비교적 고르게 수록함으로써 그가 ‘백과전서적 지식을 갖춘 인물’, ‘사상이론의 영재’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의 주제를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통일 분야로 대분류한 다음 각 범주마다 중분류와 소분류를 두고 김정일의 활동 시기별로 살펴볼 때 「선집」에 실린 문헌의 주제에서 일정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문헌의 주제를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통일의 5개 범주로 나눌 때 사회문화 분야의 문헌이 39.9%로 으뜸이고 다음이 정치분야의 문헌으로 38.9%, 경제분야의 문헌이 12.8%로 3위이며 군사외교가 5.6%, 통일문제를 다룬 문헌이 2.8%이다.

사회문화를 사회와 문화로, 군사외교를 군사와 외교로 각각 분리했을 경우의 순서는 문화분야의 문헌이 정치의 뒤를 이어 2위, 경제가 3위, 사회분야 문헌이 11.5%로 4위, 군사분야 문헌이 4.7%로 5위, 통일분야 문헌이 2.8%로 6위이며 외교분야 문헌이 0.9%로 맨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

시기별로 볼 때도 대체로 정치, 문화에 관한 문헌이 가장 많은 반면 통일, 외교 분야의 문헌이 언제나 마지막 순위이다. 64~73년까지는 사회문화, 특히 문화분야 문헌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분야 문헌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북한이 중·소분쟁의 격화와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의

확대 등으로 60년대 중반부터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추세 중 뚜렷한 점은 70년대 중반 이후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의 문헌을 합계한 비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사분야의 문헌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중분류에 따른 각 부문의 주제별 변화양상을 추적해 보면, 우선 정치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주제는 당에 관한 것인데, 정치분야 문헌 125편 가운데 73편으로 5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촉구하는 25편의 문헌으로 20%이며 김일성의 우상화가 3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 및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상교양, 인민정권, 사법, 치안이다.

정치분야의 문헌을 시기별로 보면 당에 관한 언급의 부침이 두드러진다. 당을 주제로 한 문헌의 빈도수는 64~73년까지는 14편으로 전체의 11.2%였다가 75~80년이 되면 29편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80년대는 19편으로 감소하고 감소추세는 90년대에도 이어져 91~99년에는 11편으로 줄어든다.

70년대 중반부터 당에 관한 언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김정일 개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더불어 북한의 70년대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매진하면서 당사업의 강화, 특히 사상사업과 당일군들의 사업 자세에 대한 강조 때문으로 보인다.

80년대에 이르면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사상관계 문헌이 전체 8편 가운데 6편이 발표되며 당사업의 강화를 강조하는 문헌수는 70년대처럼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

90년대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헌이 크게 증가

한 점이다.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헌은 8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오면 전체 25편 가운데 18편으로 72%를 차지한다. 이는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기존의 체제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김정일의 의지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 가장 자주 문헌의 주제로 된 것은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일반론으로 약 34.1%인 14편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목표 및 정책 달성을 촉구하는 문헌, 국가규모의 경제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거기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한 문헌, 절약이나 증산 등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태도를 지적한 문헌, ‘80년대 속도’ 창조투쟁을 비롯해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을 강조한 문헌, 경제계획수립과 그 수행의 중요성을 역설한 문헌이 있다.

시기별로 볼 때 주목할 점은 70년대 중반에 와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일반론에서 국가규모의 경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헌과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을 강조한 문헌이 발표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경제부문간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경제관리가 강조된 점에서 70년대의 북한경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80년대에 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하면서 인민소비품의 증산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헌 2편이 등장했다. 이는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강조한 문헌, 재정을 언급한 문헌, 간석지사업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토관리 문헌,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의 철저를 강조한 문헌 등이 발표됨으로써 경제분야의 문헌주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도 이어져 자원개발과 대외무역을 언급한 문

헌의 등장으로 확대된다.

「선집」에 실린 문헌 총수 321편 가운데 군사부문의 문헌은 15편, 특히 외교분야의 문헌은 불과 3편에 지나지 않아 연대별로 변화추세를 관찰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로 보아 군사부문 문헌의 내용은 군사력 강화와 군사중시 기풍의 확립, 군수공업 발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문 문헌도 반제·반자본주의투쟁을 촉구하는 한편 비동맹운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밝힌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정치적 변화에 맞서 반미·반일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반제국주의투쟁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동요를 단속하려는 데 연유한 것이다. 외교관련 문헌이 적은 이유는 74년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대외분야는 김일성이 계속 장악하고 김정일은 대내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한 역할 분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회부문을 살펴보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문헌이 17편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근로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이 6편, 여성의 혁명화와 역할, 조직문제를 거론한 문헌이 3편, 도시경영 관련 문헌이 3편, 사회운동을 지적한 것이 2편, 사회주의생활양식의 확립과 생활질서의 준수, 의료보건, 봉사정신을 강조한 문헌이 각각 1편씩이다.

시기별 변화추세를 볼 때 특기할 사항은 8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인 규율·질서·공중도덕을 언급한 문헌이 나타난 것과 90년대에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임무를 역설하는 문헌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사회가 사회질서면에서 문란해졌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데 젊은 세대의 지지가 필요함을 의식한 때문이다.

한편 문화분야의 문헌을 보면 전체 91편 가운데 영화·연극·가극을 다룬 문헌이 33편으로 문화분야 문헌중 양적으로 으뜸이다. 그 다음

은 문예정책을 해설하면서 거기에 맞는 작품의 창작을 강조한 내용의 문헌으로 16편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언론 관련 문헌이 9편, 교육에 관한 것이 6편이다. 나머지는 각 문화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헌으로 음악·무용, 미술, 건축, 관광자원 관리, 체육,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교예, 집단체조에 관한 것이다.

시기별로 변화를 볼 때 두드러지는 점은 64~73년까지 영화·연극부 문과 문예부문 문헌이 절대적으로 많다가 70년대 중반부터 크게 줄어드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의 정치적 활동분야와 개인 관심사가 반영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가 김정일이 당 선전선동부에서 영화사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과장과 부부장을 거쳐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 자신이 문예분야에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의 기여를 강조하는 조총련 관련 문헌을 제외하면 순수한 통일부문 문헌은 4편뿐이고, 그것도 72년, 82년, 97년, 98년에 발표되어 시차가 크다. 대체로 그 내용은 통일에 관한 북한의 기본방안이나 각종의 대남제의,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70, 80년대에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접촉이 많았고 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쌍방간의 줄다리기가 활발히 전개된 때임에도 관련문헌은 두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역시 통일과 대남문제를 줄곧 김일성이 맡아온 것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후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이 강조되고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선전하면서 97년과 98년 통일관련 문헌이 발표되었는데, 이 분야의 문헌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목 차 -

I. 서 론	1
II. 「김정일선집」 해제	5
1. 출판 배경	5
2. 구성과 특징	13
3. 문헌주제 분석	21
III.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 「김정일선집」의 문헌	30
1. 후계자로의 준비(1964~1973)	30
2. 후계자로의 추대(1974~1980)	40
3. 후계자의 공식화(1981~1990)	51
4. 후계자의 시대(1991~1999)	59
IV. 결 론	67
참고문헌	70

- 표 목 차 -

<표 1> 『김정일선집』의 구성	16
<표 2> 『김정일선집』의 문헌종류	19
<표 3> 주제별분류표	22
<표 4> 문헌주제의 부분별 분포상태	24
<표 5> 대분류에 의한 연대별 주제의 분포	24
<표 6> 당과 사회주의건설 문헌수의 변화 추이	26

I. 서론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을 새롭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체를 바로 평가하지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장막속에 가려졌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크게 늘어났다. 북한의 가요를 비롯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음주법이 한때 유행되기도 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현재 남북관계가 주춤거리고 퇴보하는 느낌이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위한 각종 남북대화가 진행되었고 북한의 언론매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를 통한 대남 비방도 사라졌다.

우리 국민들도 정상회담 이래 남북관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이 5월에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변화했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63.8%에 달했다.¹⁾ 북한도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평양시 보고회’에서 남북간 “단절되었던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당국과 정당, 단체, 각계각층 사이에 광범위한 내왕과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²⁾

긴 안목에서 볼 때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진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 이 전환축의 한 쪽에는

1) 『사회교육방송』, 2001. 5. 30.

2) 『중앙방송』, 2001. 6. 14.

2 「김정일선집」 분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내에서는 김정일 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초 그가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월 중순 전격적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지구를 방문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폭되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과학분야를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주체의 과학정치’가 등장했는가 하면 인식 전환 차원에서 당·정·군 간부들의 산업시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 홍성남 내각총리는 사업보고를 통해 대외관계의 전면적인 확대·발전, 국제기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과학기술 교류사업 개선·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사상관점과 사고 방식에서의 근본적 전환을 역설했다.³⁾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은 컴퓨터산업” 등을 외치면서 남한과의 정보기술산업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정책이 남북관계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확일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변화의 풍향계인 김정일의 일거수일투족은 북한 연구자에게 최고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전공이 무엇이든 북한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정일에 대한 이해는 필수불가결한데,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이 그의 저작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의 저작은 북한에 대한 ‘과학적 연구’⁴⁾에 필요한 자료의 절대량이 극히 부족한 실정에서 한정된 자료의 최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나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권력자의 생각을 담고있는 자료라는 관점에

3) 『중앙방송』, 2001. 4. 5.

4) 북한연구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이서행, “북한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2000), pp. 5~22 참조.

서나 자료로서의 중요한 지위와 의의를 가진다. 이를테면 김정일의 저작은 김정일의 사고와 지향하는 정책뿐 아니라 북한사회가 특정 시점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정일선집」은 글자 그대로 김정일의 저작 가운데 북한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뽑은 것이기에 많은 저작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연구의 1차자료로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⁵⁾ 최고권력자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정일선집」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한 연구가 없어 다소의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김정일선집」을 해체함으로써 북한연구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김정일선집」을 활용하려는 북한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⁶⁾

본 연구는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나는 「김정일선집」속의 문헌을 시대가 아닌 주제별로 분류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수의 증감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는 「김정일선집」에 실린 문헌의 내용이 매 시기 북한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김정일의 기본의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정이나 북한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문헌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김정일의 집권과정이나 관심사와 문헌

5) 1차문헌의 효용성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의 “북한연구방법론: 연구시각, 자료, 이론틀,”;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의 제1부 제2장 참조.

6) 「김정일선집」은 현재 14권까지 출판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로부터 14권 모두를 입수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4권은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4권은 제외되었다.

4 「김정일선집」 분석

의 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전자는 Ⅱ장, 후자는 Ⅲ장에서 다루어진다.

II. 『김정일선집』 해제

1. 출판 배경

북한에서 김정일의 논문이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이 해에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스>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세 편의 김정일 논문을 출간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년감』은 1982년 출판부문에서 이룩된 특기할만한 성과라고 밝혔고⁷⁾ 이후 김정일이 새로 발표했거나 그 동안 미공개된 저술들이 속속 출판되고 있다.

김정일의 논문이 1982년에 처음 출판된 것은 후계자로서의 그의 지위가 확고히 구축된 때문이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사실상 제2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했다.

김정일은 1981년 5월 18일에서 22일까지 묘향산지구를 시찰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실무지도’로 공개되면서 그 활동이 표면화되었다.⁸⁾ 이후 김정일은 10월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에서 김일성 다음의 2순위로 격상되었고 1982년 2월 28일 실시된 최

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376. 『조선중앙년감』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이라는 항목을 처음으로 설정하여 해당년도에 김정일이 발표한 문헌을 수록하기 시작한 것도 1983년판부터이다.

8) 1982년판 『조선중앙년감』은 처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실무지도”라는 항목하에 김정일의 활동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6 「김정일선집」 분석

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처럼 김정일이 공개적으로 후계자의 위치를 다져가면서 북한사회 내부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선전과 찬양이 본격화된다.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에 대한 호칭도 ‘령도자’(1983), ‘최고사령관’(1983), ‘수령’(1985), ‘인민의 아버지’(1986), ‘위대한 지도자’ 및 ‘위대한 령도자’(1987) 등으로 변화했고 북한은 1980년대의 중요과제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선언했다.

1982년에 김정일의 저작 출판사업이 추진된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의 사상가적 자질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⁹⁾

북한은 민중의 추대에 기초하고 새 세대 인물 가운데서 수령생존시에 인물분위로 후계자를 선출한다는 후계자 선출에서의 세 가지 세칙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고 한다.¹⁰⁾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이른바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기 전에 이론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물론 일각에서는 후계자론이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수령론’과 함께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하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내고 1985년 10월 당 창당 4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주체사상총서」가 발간됨으로써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영도체계론이 정립되었고, 그 이후 후계자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후계자론’이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정당화를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이는 후계자론이 주체사상→수령론→혁명

9)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3.

10)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선출」, (발행처 불명, 1989), pp. 38~52.

위업계승론→후계자론이라는 논리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시점의 선후를 떠나 어쨌든 북한은 후계자를 인물본위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인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덕목으로 비범한 예지, 고매한 덕성, 탁월한 영도력을 강조했다. 김정일 저작의 출판사업은 그가 이 모두를 겸비한 인물임을 선전하기 위한 필수수단이다.

일단 훌륭한 저작이 많다는 것은 ‘비범한 예지’를 소유한 지성적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욱이 그 저작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문예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정책제시라면 그것들은 저자의 ‘고매한 덕성’과 ‘탁월한 영도력’을 과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은 “위인중의 위인은 바로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사상을 밝혀주는 사상의 영재”인데, 김정일의 사상이론은 “그 폭과 다면성에 있어서 세계를 포괄”할 정도로 “백과전서적 폭을 가지고 집대성”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사상리론의 풍부성과 심오성”이 ‘김정일사상’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¹¹⁾ 또한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권위는 “지도자가 지닌 품모와 자질, 지도자가 대중을 령도해 나가는 투쟁의 길에서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무엇보다 사상의 권위, 사상리론적 업적의 권위이다. 혁명의 령도자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 예지는 사회생활 전반에 대

11) 김화·고봉,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31, pp. 92~93.

한 해박한 지식과 겸비되어 그 모든 분야들에 빛을 주는 무한대의 예지이기도 하다”고 찬양한다.¹²⁾

김정일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은 1982년에 주민들의 학습교재로 「인민의 지도자」와 「위대한 풍모」를 출판하는데, 여기서 김정일은 충성심의 귀감이고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를 갖추고 있으며 담대한 기상과 혁명적 열성, 겸손성과 소박성,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고결한 혁명적 의리를 중시하는 정치생명의 은인으로 묘사된다. 특히 김정일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문헌을 발표함으로써 사상이론가로서의 자질을 선전하기에 이르며 10월에는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는 문헌을 발표해 당건설 및 조직문제의 이론가로서의 자질을 과시했다.¹³⁾

-
- 12) 리강섭,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최고봉의 권위,” 「철학연구」, 1999년 제1호, p. 6.
- 13) 김정일은 김일성의 전기가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것을 보면 김정일의 전기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수령님의 위대성을 선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풍모,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인식할수 있도록 내용을 폭넓게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숭고한 풍모, 빛나는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방도의 하나는 수령님의 전기를 편찬출판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월 27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87. “수령님의 전기에는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시켜 오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그것을 구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기적을 창조하신 탁월한 령도업적, 만사람을 한 품에 안아 혁명의 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겸허하신 인민적 품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전기가 명실공히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 비범한 군사전략가, 만민

북한은 1983년에도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다시 출판하는 한편, 1982년에 발표된 세 편의 문헌에 대한 해설서를 출간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이 해에는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문화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김정일을 칭송하며 쓴 글과 시들을 묶었다는 『시대의 향도성』 2, 3권도 출판했다.

1984년에도 그 해에 김정일이 발표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1985년에는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농업근로자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1985년에 김정일 저작의 출판과 관련하여 특기할 일은 과거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문헌들을 소급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1964년에 발표했다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1975년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1978년의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이 출판된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과거 업적을 재구성해 공개함으로써 그가 후계자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선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의 문헌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작업은 1986년에도 계속되어, 이 해에 발표된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와 함께, 1974년에 발표된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

의 아버지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혁명의 교과서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의 책, p. 88~89.

히 세우자”, 1976년의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1981년의 “주체적 문학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에 발표했다는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등이 단행본으로 나왔다. 이로써 북한이 1983년부터 4년 남짓한 기간동안 김정일의 문헌을 단행본으로 발행한 수는 100종에 달한다.¹⁴⁾

그리고 1986년은 북한이 김정일의 문헌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첫 해인데, 외국문중합출판사에서는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의 첫 번째 부분 <생활과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했다. 이 밖에도 문예출판사에서는 김정일의 문예이론총서라고 할 수 있는 『조선화창작리론』, 『무용예술리론』, 『공예 및 산업미술창작리론』, 『교예예술리론』, 『기악창작리론』의 출판과 더불어 문학예술부문에서 김정일이 쌓은 업적을 전 15권으로 출판하는 『문학예술의 영재』중 여섯 권을 우선 간행했다.

북한에서 발행한 김정일 관련 서적들은 김정일 명의의 논문이나 저작, 그의 전기, 화보·사진집, 개별 저작에 대한 해설서 등이다. 김정일의 논문이나 저술을 묶은 『선집』, 『저작집』, 『부문별 저작집』의 경우 1986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에 이어, 1987년에는 처음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이 네 권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1964년부터 1982년까지 김정일이 한 담화, 결론, 연설 등 총 108편의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다.

1987년에도 과거의 문헌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사업은 계속되어 1975년의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78년의 “당 안에 혁명적 규률을

1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287.

세우며 사회주의경제건설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1980년의 “당 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85년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6년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이 출간되었다. 1987년 4월 11일에 새로 발표된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음을 물론이다. 전년도에 이어 『영화예술론』의 <영화와 연출>, <성격과 배우> 부분이, 그리고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가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의 저명 인사들이 김정일을 칭송하여 썼다는 글들을 묶은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 『동방의 위인 김정일』도 간행되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문학예술의 영재』를 제10권까지 출판하였으며 김정일이 수도건설에서 쌓았다는 업적을 선전한 화보집 『주체건축의 대화원』 1권을 발간했다.

1988년에도 새로 발표된 “연극예술에 대하여”,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와 함께, 1987년에 발표된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의 두 문헌은 외국문종합출판사에 의해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이 해에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발표된 김정일의 문헌을 묶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제5권과 아울러 화보집 『주체건축의 대화원』 제2권과 『김정일화』 등이 출간되었다.

1989년에는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그 해 발표된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단행본으로 내놓았고 외국문종합출판사에서는

김정일의 전기인 「위대한 인간의 품모」를 외국어로 출판했다.

1990년에는 김정일이 문학예술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발표한 22편의 문헌을 수록한 「주체의 문학예술에 대하여」를 출판했고 새로 발표한 논문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와 더불어 1964년에 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1980년 김정일이 공식후계자로 선출되면서 시작된 그의 저작 출판을 통한 선전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 김일성이 정치무대 전면에서 점차 물러나고 그 공간을 김정일이 대체하면서 더욱 본격화된다.

따라서 1991년의 경우 이 해에 발표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 외에 김정일의 활동역사와 영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강조하는 도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6」은 문헌집인데, 전자에는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스>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등 4편의 문헌이, 후자에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기간에 김정일이 한 연설, 담화 등 19편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주요 년표 (1~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1)」이 간행되었다.

문헌집의 출판은 1992년 「김정일선집」의 출판으로 절정을 이룬다. 북한은 김정일의 50회 생일기념으로 이 해 2월 14일 최초로 전집류 형태인 「선집」¹⁵⁾ 1권을 출판함으로써 김정일저작이 출판된 이래 정

확히 10년만에 김일성의 경우처럼 김정일저작의 본격적인 체계화작업에 착수했다.

2. 구성과 특징

『선집』 편찬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으면서 『김정일선집』을 출판한다. 『김정일선집』에는 이미 발표된 문헌들과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문헌들 가운데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헌들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⁶⁾

북한에서 문헌이란 무엇을 인식하거나 터득함에 있어 매우 귀중하거나 참고로 될만한 기록의 총체로서 보고나 연설, 결정, 정령, 호소문, 성명, 선언서, 커뮤니케, 질의문, 공개적인 서한 등을 의미한다. 즉 문헌은 “해당 시기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혁명과업 및 그 수행방도, 대중의 행동방향을 명시함은 물론 국제적 상황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당 및 국가의 태도와 견해, 리해와 관계를 천명한 문서”이다.¹⁷⁾

따라서 특정 시기에 제기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행해진 보고 및 연설, 인민대중이 앞으로 취할 태도나 행동방향을 제시한 결정 및 결론, 주어진 시기 혁명과업으로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 국제적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견해와 태도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공식 성명이나 선언서 등은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15) 이하에서는 『김정일선집』을 『선집』으로 약칭한다.

16)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 서문 참조.

17)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 pp. 113~114. 북한의 배순재와 라두림이 공저한 『신문리론』은 김영주와 이범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서울: 나남, 1991)에 전재되어 있다.

문헌의 목적과 의의는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북한의 주요 공식 문헌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성격은 당의 정책과 노선, 당의 태도와 견해가 투철하게 천명된다는 데 있으며 문헌에서 표명된 견해는 북한주민들의 행동강령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 대회를 비롯한 중요 회의에서 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보고 및 연설, 신년사, 당의 결정 등은 혁명과업의 내용과 목적, 방향과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규정한 것”으로 취급된다.

「선집」을 출판하면서 편찬위원회도 “김정일동지의 문헌들은 당, 국가, 군대 건설과 경제, 문화 건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참된 교과서”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⁸⁾ 바로 이같은 사정 때문에 북한의 출판물에서는 문헌들을 특별히 신중하게 편집한다고 한다.¹⁹⁾

현재 「선집」은 14권까지 출판되어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1964년 4월 2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한 담화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시작으로 1999년 9월 2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가 가장 최근의 저술로 수록되어 있다. 「선집」 14권이 포괄하고 있는 시대의 범위는 35년여에 이르며 전체 수록된 문헌은 338편, 모두 7,050쪽이다.

1권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1964년 4월부터 1969년 9월까지 발표한 46편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문헌들에 대해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의 위업을

18) 「김정일선집 1」, 서문 참조.

19)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 p. 114.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힌 대백과전서”라고 극찬했다.²⁰⁾ 이듬해인 1993년 1월에는 제2권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1970년 1월부터 1972년 11월 사이에 발표한 문헌 29편이 수록되어 있다.

1994년에 출판된 『선집』 제3권에는 김정일이 1973년 1월부터 12월까지 행한 연설, 결론, 담화 등 11편의 문헌이, 제4권에는 197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한 연설, 결론, 담화 등 17편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제5권에는 1975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발표한 33편의 문헌이, 제6권에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발표한 38편의 문헌이 실려있다. 제7권에는 1981년 3월 8일부터 1983년 5월 3일까지의 기간에 발표한 연설, 결론, 논문, 담화 등 23편의 문헌이 들어있고, 제8권에는 1984년 2월 16일부터 1986년 11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발표한 28편의 연설, 서한, 담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9권에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에 한 연설과 담화를 비롯한 18편의 문헌이, 제10권에는 1990년에 발표한 15편의 문헌이, 제11권에는 199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행한 연설과 서한을 비롯한 8편의 문헌이, 제12권에는 1991년 8월부터 1992년 1월 사이에 발표한 7편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1998년에 출판된 제13권에는 1992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발표한 27편의 문헌이 실려있고 1995년부터 1999년 9월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 있는 제14권에는 모두 38편의 문헌이 들어있다.

『선집』의 구성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20) 『로동신문』, 1992. 2. 14.

<표 1> 「김정일선집」의 구성

권수	포괄시기	문헌수	쪽수	출판사	출판년도
1	1964-1969	46	49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1970. 1 - 1972. 11	29	42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	1973	11	50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	1974	17	57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	1975-1977	33	49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6	1978-1980	38	47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7	1981-1983	23	46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8	1984-1986	28	49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9	1987-1989	18	46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0	1990	15	510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1	1991.1 - 1991.7	8	58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2	1991.8 - 1992.1	7	59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3	1992.2 - 1994.12	27	497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4	1995-1999	38	480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수록문헌의 제목은 <부록> 참조

「선집」에서의 시기구분은 각 권의 분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가 창당 50주년을 맞이하여 출간한 김정일의 공식 전기는 김정일의 출생부터 현재까지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²¹⁾ 첫째 시기는 1942년 2월부터 1960년 8월까지, 둘째 시기는 1960년 9월부터 1964년 3월까지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시절, 셋째 시기는 1964년 4월부터 1974년 1월까지 당중앙위원회에서의 활동기간, 넷째 시기는 후계자로 추대된 1974년 2월부터 1980년 9월까지, 다섯 번째 시기는

21)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 략력」,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런 시기구분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이 시기구분은 김정일의 활동사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1980년 10월부터 1995년 7월까지이다. 또한 1997년 김정일 탄생 55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김정일동지 략전』²²⁾은 김정일의 탄생과 성장, 대학 재학시절,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후계자로 추대되기 전까지의 활동, 후계자로 추대된 때부터 당 제6차 대회 전까지의 활동내용, 1980년대의 활동, 1990년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벌인 활동 등 6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구분했을 뿐 앞의 전기와 대동소이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선집』에서의 시기구분은 제책상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집』에는 김정일이 대학시절에 발표했다는 논문은 실려있지 않다. 예컨대 대학졸업 논문으로 북한내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도 빠져있다. 김정일이 일찍부터 이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선전하는 데는 대학시절 발표한 논문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대학시절의 논문 모음집을 이미 출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학시절의 논문을 공식 문헌으로 채택하기 꺼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일성이 1945년 8월 해방이후 발표한 문헌들만 공식 문헌으로 취급하다가 1979년 『저작집』 출판 때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저술을 삽입하여 그의 지도자적 자질의 내재성을 선전한 전례²³⁾에 비추어 김정일의 경우도 다른 전집류의 출판이나 『선집』의 수정 때는 대학시절의 논문을 삽입할 가능성이 있다.

『선집』에 실린 문헌의 종류는 연설, 담화, 결론, 대답, 서한, 논문, 축하문, 감사문, 명령이다. 수집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4권의 17편 문헌을 제외한 총 321편 가운데 대부분은 담화문이다. 담화

2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동지 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이 책은 5개 장, 37개 절, 73개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p. 37.

이외의 것으로는 연설이 76편, 결론 6편, 대답 3편, 서한 37편, 축하문 4편, 감사문 1편, 논문 17편, 명령 1편이다.²⁴⁾

연설, 담화, 결론은 주로 당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이나 문예, 교육, 언론, 군사, 외교 등의 각 부문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 연설이나 대화를 기록한 것이고 서한은 각 분야의 주요 대회 참가자들이나 조직창립 기념일에 맞춰 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축하 성격의 것이다. 논문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와 같이 특정 시기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원칙을 천명한 것이나 “영화예술론”,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주체문학론” 등처럼 어떤 주제를 이론적으로 상세히 논의한 것이 있다. 감사문은 김일성 사망시 조의를 표시한 북한 주민들에게 1994년 10월 28일 보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준 전체 인민들에게”가 유일하고 축하문은 어떤 분야의 업적을 치하하는 글이며 대답은 어떤 문제에 관해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서, 예를 들면 9권에 수록된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

김정일은 대중앞에 나서 연설하기를 꺼린다는 소문과 다소 다르게 『선집』에 실린 문헌 가운데는 상당수의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시기로 보면 60년대 말까지는 매년 한 번 정도로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으나 71년부터는 연설이 크게 늘어나 7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는 대부분의 문헌이 연설문일 정도이다. 이 시기가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되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때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연설문의 증가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24) 명령은 1993년 3월 8일에 하달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이다.

80년대에 들어오면 연설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문헌의 성격이 서한과 논문, 축하문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서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면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한으로 대체해야 할 정도로 활동반경이 대폭 늘어난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김정일선집』의 문헌종류

권수	포괄시기	문헌수	문헌종류									
			담화	연설	결론	서한	논문	대답	축하문	감사문	명령	
1	1964-1969	46	42	4								
2	1970.1-1972.11	29	19	6	3			1				
3	1973	11	5	4	1		1					
5	1975-1977	33	14	19								
6	1978-1980	38	15	18	1	4						
7	1981-1983	23	7	5	1	5	4		1			
8	1984-1986	28	10	8		8		1	1			
9	1987-1989	18	13	3		1		1				
10	1990	15	5	6		2	2					
11	1991.1-1991.7	8	1	1		4	2					
12	1991.8-1992.1	7	2			3	2					
13	1992.2-1994.12	27	17	2		4	2			1	1	
14	1995-1999	38	26			6	4		2			

한편 김정일이 1964년 6월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으로 당사업을 시작한 이후 발표한 이른바 ‘노작’ 가운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된 것만 530여편에 달하며²⁵⁾ 김정일이 대학시절 작성한 저술을 엮은 15권의 『김일성종합대학의 임무에 대하여』만 하더라도 각종 분야의 논문과 연설문, 담화문, 서한 등 무려 1,500여편이 실려있다.²⁶⁾ 짧은

25) 『중앙통신』, 2001. 6. 18.

26) 김남진외,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1995), p. 80.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0), p. 216에서 재인용; 김화·고

시기에 엄청난 양의 문헌을 남겼으므로 당연히 그 진위여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북한의 당 고위간부 출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학시절 김정일은 당정책 관련 논문을 여러 편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바로 개인교수들에게서 받은 과제였다. 김정일의 정치적 관심과 실력을 배양하려는 김일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개인교수들은 그에게 계획적으로 과제를 주고 정리된 논문을 수정해 주는 일을 도맡았다.²⁷⁾

따라서 「선집」에 실린 문헌이 전적으로 김정일에 의해 씌어진 것은 아니다. 김정일의 문헌은 대부분 그의 서기들이 쓰거나 그가 환담 및 현지지도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나 지시를 수정·보완하여 출판한 것이다.

김정일의 문헌이 그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출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로동신문」에서 그의 문헌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헌에 관해 구체적인 제목을 밝히지 않고 내용중심으로 소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제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한 문건”으로 처음 보도²⁸⁾되었던 것이 1990년 1월 8일자 「로동신문」에서는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라고 그 제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1978년 7월 13일에 발표되었다는 “당 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봉,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p. 107.

27)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p. 45.

28) 「로동신문」, 1985. 1. 7.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도 그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83년 7월 13일이고 제목이 밝혀진 시기는 1988년 7월 13일이다. 1981년 3월 8일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있는 “당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도 1984년 3월 8일에 내용이 처음 공개되었고 구체적 제목이 붙여진 시기는 1985년 7월 23일이다.²⁹⁾

3. 문헌주제 분석

『선집』에 수록된 문헌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이는 『선집』 출판의 목적이 김정일을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지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다. 즉 『선집』에는 각 분야에 관해 발표된 김정일의 문헌을 비교적 고르게 수록함으로써 그가 ‘백과전서적 지식을 갖춘 인물’, ‘사상이론의 영재’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의 주제를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통일 분야로 대분류한 다음 각 범주마다 중분류와 소분류를 두고 앞서 언급한 김정일의 활동 시기별로 살펴볼 때 『선집』에 실린 문헌의 주제에서 일정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³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별 분류표는 <표 3>과 같다.

29)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p. 11 각주 참조.

30) 본 연구가 이같이 주제를 분류함에 있어 참고한 자료는 북한이 발간한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과 『김일성저작집색인』이다. 수록된 문헌의 내용상 『김정일선집』과 『김일성저작집』간의 유사성 외에도 『김정일선집』이 기본적으로 『김일성저작집』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하여 『김정일선집』의 문헌 주제를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 (동경: 구월서방, 1971); 외국문출판사, 『김일성저작색인』 (평양: 외국문출판사, 1991)

<표 3> 주제별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 치	주체사상	주체철학·사상 해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우상화	김일성의 업적 찬양, 수령에 대한 충성 강조, 대이어 충성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혁명과 건설 독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강조,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반제투쟁, 전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	
	당	당내 유일사상체계확립, 당의 통일·단결, 당조직 강화, 당의 역할·지도 강조, 당노선·정책의 정당성과 관철, 당일군의 자세·책임, 당 간부 육성, 당사상사업 강화, 당사업방법론	
	국가	인민정권의 역할	
	사상교양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육성	
	사범·치안	사범검찰사업의 개선·강화, 사회안전	
	경 제	경제건설	경제목표·정책 달성 촉구
			경제관리 철저, 그 방법론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태도(증산·절약)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3대혁명, 속도전)	
		경제계획화, 경제계획 수행 강조	
농림 수산업		농촌경리,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광공업		광업(석탄) 경공업(소비품공업)	
생활향상	인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기술혁신 강조, 생산자동화, 기계현대화		
기타	상업(상품공급), 재정·금융, 자원개발, 국토관리,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 대외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군사 외교	군사	군사력 강화, 군사중시 기풍 확립, 군사교육, 군수공업		
	외교	제3세계와의 친선·단결, 반제투쟁		
사회 문화	사회	근로단체의 역할		
		청년들의 역할 강조		
		여성의 혁명화 및 역할		
		도시경영		
		의료보건		
		사회운동		
		생활질서·법규 준수, 도덕 존중, 봉사정신		
		문화	교육	
			사회문화생활 개선, 생산문화 개선	
			인텔리 혁명화	
				문학, 영화·연극·가극, 음악·무용, 미술·건축, 관광자원 관리, 체육, 출판보도(언론),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교예, 집단체조
		통일	통일방안	기본방침,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각종 대남제의
조총련	조총련의 역할			

먼저 문헌의 주제를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통일의 5개 범주로 나눌 때 사회문화 분야의 문헌이 39.9%로 으뜸이고 다음이 정치분야의 문헌으로 38.9%, 경제분야의 문헌이 12.8%로 3위이며 군사외교가 5.6%, 통일문제를 다룬 문헌이 2.8%이다.

사회문화를 사회와 문화로, 군사외교를 군사와 외교로 각각 분리했을 경우의 순서는 문화분야의 문헌이 정치의 뒤를 이어 2위, 경제가 3위, 사회분야 문헌이 11.5%로 4위, 군사분야 문헌이 4.7%로 5위, 통일분야 문헌이 2.8%로 6위이며 외교분야 문헌이 0.9%로 맨 마지막

막을 기록하고 있다.

<표 4> 문헌주제의 부문별 분포상태

부 문	문 헌 수	백 분 율 (%)
정 치	125	38.9
경 제	41	12.8
군 사 외 교	18	5.6
(군 사)	(15)	(4.7)
(외 교)	(3)	(0.9)
사 회 문 화	128	39.9
(사 회)	(37)	(11.5)
(문 화)	(91)	(28.3)
통 일	9	2.8
계	321	100.0

시기별로 볼 때도 대체로 정치, 문화에 관한 문헌이 가장 많은 반면 통일, 외교 분야의 문헌이 언제나 마지막 순위이다. 대분류에 의한 주제별 변화추세는 <표 5>와 같다.

<표 5> 대분류에 의한 연대별 주제의 분포

	1964~73	1975~80	1981~90	1991~99	전 체
정 치	23.3	45.1	44.0	45.0	38.9
경 제	5.8	12.7	14.3	18.8	12.8
군사외교	8.1	7.0	4.8	2.5	5.6
(군사)	(7.0)	(5.6)	(3.6)	(2.5)	(4.7)
(외교)	(1.2)	(1.4)	(1.2)	(0.0)	(0.9)
사회문화	60.5	33.8	34.5	28.8	39.9
(사회)	(5.8)	(8.5)	(15.5)	(16.3)	(11.5)
(문화)	(54.7)	(25.4)	(19.0)	(12.5)	(28.3)
통 일	2.3	1.4	2.4	5.0	2.8
계	100.0	100.0	100.0	100.1	100.0

64~73년까지는 사회문화, 특히 문화분야 문헌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분야 문헌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북한이 중·소분쟁의 격화와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의 확대 등으로 60년대 중반부터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추세 중 뚜렷한 점은 70년대 중반 이후 정치분야와 경제분야의 문헌을 합계한 비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사분야의 문헌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중분류에 따른 각 분야의 주제별 변화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주제는 당에 관한 것인데, 정치분야 문헌 125편 가운데 73편으로 5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촉구하는 25편의 문헌으로 20%이며 김일성의 우상화가 3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 및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상교양, 인민정권, 사법, 치안이다.

정치분야의 문헌을 시기별로 보면 당에 관한 언급의 부침이 두드러진다. 당을 주제로 한 문헌의 빈도수는 64~73년까지는 14편으로 전체의 11.2%였다가 75~80년이 되면 29편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80년대는 19편으로 감소하고 감소추세는 90년대에도 이어져 91~99년에는 11편으로 줄어든다.

70년대 중반부터 당에 관한 언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김정일 개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더불어 북한의 70년대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매진하면서 당사업의 강화, 특히 사상사업과 당일군들의 사업 자세에 대한 강조 때문으로 보인다.

80년대에 이르면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사상관계 문헌이 전체 8편 가운데 6편이 발표되며 당사업의 강화를 강조하는 문헌수는 70년대처럼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

90년대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헌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헌은 8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오면 전체 25편 가운데 18편으로 72%를 차지한다. 이는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기존의 체제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김정일의 의지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6> 당과 사회주의건설 문헌수의 변화 추이

	1964-73	1975-80	1981-90	1991-99
당	14(73)	29(73)	19(73)	11(73)
사회주의건설	0(25)	0(25)	7(25)	18(25)

*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문헌수

경제부문에서 가장 자주 문헌의 주제로 된 것은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일반론으로 약 34.1%인 14편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목표 및 정책 달성을 촉구하는 문헌, 국가규모의 경제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거기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한 문헌, 절약이나 증산 등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태도를 지적한 문헌, ‘80년대 속도’ 창조투쟁을 비롯해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을 강조한 문헌, 경제계획수립과 그 수행의 중요성을 역설한 문헌이 있다.

이 경제건설 일반론에 이어 농림수산업에 관한 문헌이 9편, 광공업을 언급한 문헌 2편,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문헌 4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술혁신과 생산의 자동화, 기계의 현대화를 촉구하는 3편의 문헌이 있다. 나머지는 상업, 재정·금융, 자원개발, 국토관리,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 대외무역을 다룬 문헌으로서 모두 9편이다.

농림수산업이 주제인 문헌 가운데 농업 및 농촌경리를 언급한 문헌이 6편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다룬 문헌은 각각 1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광공업은 다룬 문헌의 경우 석탄 채굴 등을 강조한 광업분야의 문헌이 1편, 주로 소비품증산의 독려를 내용으로 하면서 경공업분야를 언급한 문헌이 1편이다.

시기별로 볼 때 주목할 점은 70년대 중반에 와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일반론에서 국가규모의 경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헌과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을 강조한 문헌이 발표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경제부문간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경제관리가 강조된 점에서 70년대의 북한경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80년대에 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하면서 인민소비품의 증산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헌 2편이 등장했다. 이는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강조한 문헌, 재정을 언급한 문헌, 간석지사업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토관리 문헌,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의 철저를 강조한 문헌 등이 발표됨으로써 경제분야의 문헌주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도 이어져 자원개발과 대외무역을 언급한 문헌의 등장으로 확대된다.

『선집』에 실린 문헌 총수 321편 가운데 군사부문의 문헌은 15편, 특히 외교분야의 문헌은 불과 3편에 지나지 않아 연대별로 변화추세

를 관찰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로 보아 군사부문 문헌의 내용은 군사력 강화와 군사중시 기풍의 확립, 군수공업 발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문 문헌도 반제·반자본주의투쟁을 촉구하는 한편 비동맹운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밝힌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정치적 변화에 맞서 반미·반일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반제국주의투쟁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동요를 단속하려는 데 연유한 것이다. 외교관련 문헌이 적은 이유는 74년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대외분야는 김일성이 계속 장악하고 김정일은 대내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한 역할 분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³¹⁾

사회부문을 살펴보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문헌이 17편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근로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이 6편, 여성의 혁명화와 역할, 조직문제를 거론한 문헌이 3편, 도시경영 관련 문헌이 3편, 사회운동을 지적한 것이 2편, 사회주의생활양식의 확립과 생활질서의 준수, 의료보건, 봉사정신을 강조한 문헌이 각각 1편씩이다.

시기별 변화추세를 볼 때 특기할 사항은 8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인 규율·질서·공중도덕을 언급한 문헌이 나타난 것과 90년대에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임무를 역설하는 문헌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사회가 사회질서면에서 문란해졌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데 젊은 세대의 지지가 필요함을 의식한 때문이다.

한편 문화분야의 문헌을 보면 전체 91편 가운데 영화·연극·가극을 다룬 문헌이 33편으로 문화분야 문헌중 양적으로 으뜸이다. 그 다음은 문예정책을 해설하면서 거기에 맞는 작품의 창작을 강조한 내용의 문헌으로 16편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언론 관련 문헌이 9편, 교육에

31)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p. 69.

관한 것이 6편이다. 나머지는 각 문화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헌으로 음악·무용, 미술, 건축, 관광자원 관리, 체육,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교예, 집단체조에 관한 것이다.

시기별로 변화를 볼 때 두드러지는 점은 64~73년까지 영화·연극부문과 문예부문 문헌이 절대적으로 많다가 70년대 중반부터 크게 줄어드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의 정치적 활동분야와 개인 관심사가 반영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가 김정일이 당 선전선동부에서 영화사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과장과 부부장을 거쳐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 자신이 문예분야에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의 기여를 강조하는 조총련 관련 문헌을 제외하면 순수한 통일부문 문헌은 4편뿐이고, 그것도 72년, 82년, 97년, 98년에 발표되어 시차가 크다. 대체로 그 내용은 통일에 관한 북한의 기본방안이나 각종의 대남제의,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70, 80년대에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접촉이 많았고 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쌍방간의 줄다리기가 활발히 전개된 때임에도 관련문헌은 두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역시 통일과 대남문제를 줄곧 김일성이 맡아온 것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후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이 강조되고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선전하면서 97년과 98년 통일관련 문헌이 발표되었는데, 이 분야의 문헌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Ⅲ.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 「김정일선집」의 문헌

1. 후계자로의 준비(1964~1973)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 1965년 5월부터는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의 참사실에 근무하면서 행정경험을 쌓고 1966년 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을 겸하게 되어 선전선동 수단의 중추인 예술부문을 관장한다. 그리고 중앙당에 들어간 후 거의 10년만인 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이 시기를 포괄하고 있는 「선집」은 1, 2, 3권인데 각 권에 실린 문헌의 성격에서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김정일은 대학재학 중 대학생들의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당조직생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 63년 4월부터 한 주에 한 번씩 당생활을 총화하도록 발의했는데, 이는 73년 모든 당에 확립된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학재학 중에도 김일성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군부대를 현지지도할 때 수행하는 등 김일성의 노고를 덜어준다는 명분아래 김일성을 보좌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62년 여름 창성, 삭주 지방에 내려가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일도 했고 63년에는 남포시 당위원회, 량강도 당위원회, 황해북도 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당 조직들을 방문하여 당사업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북한은 대학졸업 이전에 김정일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령님

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군사를 성실히 배우자” 등의 논문들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선집』에 실려있지 않다.

김정일이 중앙당에 들어가기 전의 저술 가운데 『선집』에 실린 문헌은 64년 4월 2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관계자와 한 담화라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와 6월 12일 조선중앙통신사 종사자들과 한 담화인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임무”의 두 편이다. 이 문헌은 『선집 1』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헌으로 수록되어 있다.

중앙당에 배속된 직후 김정일은 당사업에서 명확한 활동방향과 사업기준이 없다고 판단, 이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명확한 활동방향이란 김일성의 사상을 당의 유일한 사상체계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즉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김일성과 그 사상체계를 신성시하고 그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는데, 김정일은 이를 위해 당에 김일성의 교시가 즉시 전달·침투되고 그것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질서 확립에 골몰했다.

64년 6월 19일부터 69년까지 김정일이 발표한 문헌 가운데 『선집』에 실린 것은 총 44편이고 그 주제는 경제, 군사, 외교, 문학, 교육, 음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할만큼 다양하나, 대부분 실질적인 내용은 김일성의 위대성 및 항일혁명전통에 대한 선전의 강화, 수정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 사상교양의 강화였다.

그가 선전선동부 지도원이 된 것은 66년 2월인데, 이 시기 남긴 문헌으로 『선집』에 실린 것을 살펴보면 그는 일찍부터 직책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선전선동

부 지도원이 되어 영화부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직후 남긴 문헌이 「선집 1」권 14번째 문헌인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인데, 이 문헌에 앞서 이미 64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2·8 영화촬영소를 둘러보고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조선인민군 2·8 영화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5일)고 지시했다. 그 이튿날에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관계자들과 만나 “력사유적과 유물보전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6일) 담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그는 조직지도부 관계자 이외에 황해남도 당 및 농촌경리부문 관계자, 당중앙위원회 관계자, 제855군부대 관계자, 문학예술부문 관계자, 대외사업부문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당사업의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67년 5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 회의는 북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1960년대 중반 북한은 심각한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남한에서는 군사쿠데타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고 있었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소분쟁의 영향 때문에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미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국방건설 병진’과 4대 군사노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채택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2)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p. 5.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66년 10월 5일~12일 북한은 제2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위기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다시금 ‘경제·국방건설 병진’ 노선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방건설에 소요되는 설비와 자재를 먼저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국방력 강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린 노선이였다.³³⁾

제2차 대표자회 마지막날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는 결정된 노선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당규약을 개선하고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중·소분쟁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적 입지가 협소해진 데 반해 미국이 지원하는 남한의 군사정부는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전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첨예한 갈등 형태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여 단행된 인사개편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1/5이 교체되었는데, 경제분야 전문기술관료가 모두 탈락하고 이를 빨치산출신과 군부지도자들이 대체했다. 빨치산세력의 대두는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이미 나타났으나 1962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동안에 군사력 증강이 강조되면서 군관련 인물들의 정치적 우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인사개편에도 불구하고 당정책의 집행에 잡음이 많았다.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 실행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김창봉, 최현, 최용건, 허봉학, 김광협, 오진우 등 군부지도자들은 중공업발전이 사회주의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서 중요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금철, 리효순, 김도만, 허석선, 박용구, 하양천 등

33) 이찬행, 『김정일』, p. 230.

34) 김성철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1999), p. 118.

당료들은 경제건설과 문화생활 충족 등을 강조하면서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지지했다. 특히 후자의 세력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³⁵⁾ 결국 이 대립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로 불린 당료들이 대거 숙청됨으로써 끝났다.

김정일은 이 시기 당내에 나타난 이른바 ‘반당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 움직임’을 포착, 이 회의의 준비사업을 주도했고, 회의결과 “당내의 부르조이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을 적발 분쇄”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했다. 이 사건 직후 김정일은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라는 문헌을 남겼는데, 이것이 1권의 23번째 문헌이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에 김정일은 경제, 교육,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반당수정주의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며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특히 그는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군에 대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강화했고 김일성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노선을 철저히 추진하고자 했다. 그는 박금철 등이 주장한 ‘수정주의적 경제이론’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라는 폐해를 낳았다고 생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활동에서 근본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사상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67년 8월 함흥지구를 찾아 룡성기계련합소의 노동자들이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실천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등 전국의 공

35) 김성철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pp. 43~44, 119.

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돌면서 현지지도했다. 또한 당정책인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 68년 3월에는 중대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지시했다. 이 지시의 내용이 담긴 것이 1권 33번째 문헌인 “정치부 중대장의 임무”(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정치부 중대장과 한 담화, 1967년 3월 13일)이다.

갑산과의 숙청 결과로서 군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군부의 영향력 증대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이내 드러났다. 즉 민족보위상 김창봉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간부들이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동북아에 조성되던 군사적 긴장 때문에 4대 군사노선 관철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문을 책임지고 있던 김창봉은 당의 군사노선에 반대해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소홀히 하고 경보병부대를 해체했다. 다른 군 고위지도자들도 군사우선 정책에 힘입어 ‘군벌주의’를 조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될 뿐 군대내 정치사상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군수뇌부의 행위는 1968년 9월경 조직비서 김영주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고되었다. 김일성은 즉각 10월부터 군 전반에 검열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 1969년 1월초 군부 지도자인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등 상당수의 군 고위관제자들이 숙청되었다. 김창봉의 죄목은 군대내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대한 방해, 혁명전통 계승에 대한 반대 및 저지, 군대내에 가족주의적 종파 형성 등이었다. 허봉학도 청와대 기습,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군사모험주의’를 벌이고 당의 노선을 불이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실각했다.

김정일은 당시 당 선전선동부에 있었지만 김영주를 도와 김창봉, 허봉학 등의 비행과 비리, 동향감시, 뒷조사 결과 등을 취합해 확대회의를 조직·지도하는 역할을 했다.³⁶⁾ 김정일은 숙청 직후 이들 군부지도자들의 죄상을 지적하면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권 39번째 문헌인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가 그것이다.

김정일은 60년대말 당 지도부라 할 수 있는 혁명1세대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파격적으로 부상한다. 68년 2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이 된 데 이어 69년 9월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 70년 10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을 거쳐 73년 7월에는 선전선동부 부장이 된다. 선전선동부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동안 “주체적인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했다. 60년대초부터 영화를 비롯한 문예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여 온 김정일은 우선 영화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 성과를 거둔 다음 그 성과를 문예 전반에 일반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직접 창작했다는 작품들을 영화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피는 처녀> 등이 영화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위 ‘혁명적 영화예술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 때 저술한 대표적 논문이 1권 마지막에 실린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9월 27일)와 2권

36)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p. 117, 161.

에 실려있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년 2월 14일),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창조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8일) 등이다.

그가 이 시기에 영화와 연극을 통한 선전선동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가는 2권에 실린 문헌 총 29편 가운데 영화와 연극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헌이 13편이라는 데서 잘 알 수 있다.³⁷⁾

37) 1970년에서 1972년까지 포괄하고 있는 『선집 2』의 문헌 가운데 영화 및 연극, 가극과 직접 관련된 것은 “작가들은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영화문학작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0년 1월 16일),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년 2월 14일),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의 담화, 1970년 2월 19일),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작가, 연출가들과 한 담화, 1970년 6월 18일), “영화예술부문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0월 16일),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12일),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년 2월 15일), “우리 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4월 28일), “영화예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8일),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혁명가극 <피바다> 창조 성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17일), “영화예술부문의 당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당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3일),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창조하자”(문학에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을 위해 김일성 60회 생일을 맞아 그의 동상을 만수대 언덕 위에 세우고 혁명박물관을 새로 짓도록 함과 동시에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더 잘 꾸미고 김일성의 저술들을 대대적으로 출판·보급하도록 했다. 이에 관한 문헌이 2권 21번째 문헌인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9일)이다. 또한 그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 과제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이전에 앞당겨 완수하도록 독려했다.³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1일)는 그 기본방침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선전선동과 관련한 ‘문학예술혁명’을 주도하는 동안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이론을 한층 발전·풍부화시켰다”고 선전한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일은 문예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73년 4월에 발표한 ‘영화예술론’으로 집약된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종자론을 핵으로 하는 창작리론 등 문학예술혁명과정에 밝힌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집대성하고 창작지도에서 축적한 경험들을 체계화하였다”고 한다. 즉 ‘영화예술론’은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론의 모든 원칙적 문제들과 이론적 제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집대성한 주체의 문예리론총서이며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라는 것이다.³⁹⁾ 이 ‘영화예술론’은 「선집 3」권 4번째 문헌으

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8일),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 데 대하여”(국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1월 7일)이다.

3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p. 51.

로 실려 있다.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적인 측면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시작된 점이다. 김정일은 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았고 동년 9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로 선출되어 당의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에 올라선다. 이전에도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전 분야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3권에 실린 총 11편의 문헌은 ‘생산의 자동화’, ‘군사지휘관의 양성’, ‘혁명가극 발전’, ‘영화예술’, ‘의무교육 실시’, ‘선전선동사업의 개선’, ‘김일성주의학습’, ‘당사상사업의 강화’, ‘민족교예의 발전’ 등 그 주제가 유독 다양하다.

73년 한 해 동안 김정일은 예전처럼 사상사업에서 당의 방침과 의도가 신속히 관철되도록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우고 당에 항일유격대식 당생활총화 방법을 일반화하여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에 관한 문헌이 3권 7번째 문헌인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21일)이다.

또한 그는 황해제철소의 자동화를 본보기로 하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의 자동화 실현과 농촌경리의 기계화,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 기술혁명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3권 첫 번째 실린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월 28일)는 이와 관계있는 문헌이다.

그런데 이 무렵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움직임이 있던 때였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김정

3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p. 52.

일도 통일에 관한 문헌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김일성이 제시한 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72년 7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가 바로 그것이고, 이는 통일에 관한 최초의 김정일 문헌으로서 「선집 2」권 25번째에 수록되어 있다.

2. 후계자로의 추대(1974~1980)

북한은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김정일을 ‘당중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을 뿐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정일의 위상은 1974년 2월19일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새로이 규정 짓는 소위 ‘2·19선언’을 김정일 명의로 발표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기존의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 체제인 ‘김일성주의’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유일 통치이데올로기의 해석권까지 장악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사상이론적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수많은 고전적 로작들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1974년 2월 19일 발표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꼽았다.⁴⁰⁾ 이 문헌이 ‘2월 선언’인데, 이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제시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

40) 「중앙통신」, 2001. 6. 18.

었다”고 주장한다.⁴¹⁾

‘2월 선언’은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 위치에 올라선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문헌이라는 점과 주체사상의 성격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선출된 뒤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남긴 문헌은 『선집 4』권에 실려있다.⁴²⁾

41) 『중앙통신』, 2001. 6. 18.

42)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선집 4』권은 17편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p. 204. 그러나 필자는 4권을 입수하지 못해 실린 문헌의 정확한 제목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74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문헌은 대체로 19편 정도로 추측된다. 2월 19일의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2월 20일의 “당선전일군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2월 22일의 “사상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2월 28일의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4월 2일의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리론선전 일군들과 한 담화), 4월 9일의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4월 14일의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4월 20일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5월 7일의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6월 10일의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6월 22일의 “현시기 당내부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8월 2일의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 당조직 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8월 31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이 즈음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했다. 이는 “공산주의사회의 면모를 더욱 뚜렷히 하고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명시한 것이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었다.”⁴³⁾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고 김일성 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현시대와 공산주의의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라고

데 대하여”, 9월 4일의 “가극예술에 대하여”, 10월 1일의 “예술영화촬영소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10월 9일의 “전당이 동원되어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1월 6일의 “과학교육영화촬영소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1월 7일의 “중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12월 6일의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당선전일군들과 한 담화)이다. 『선집 4』권에는 이 가운데 두 편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들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정일의 문헌을 전집의 형태로 최초 발간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 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예술영화촬영소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전당이 동원되어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과학교육영화촬영소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의 12편이 실려있다.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참조.

4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p. 53.

찬양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의미했다. 김정일은 74년 4월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관계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⁴⁴⁾ 그리고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를 비롯한 모든 부문 관계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원칙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74년말부터 76년 사이에 이 과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토의사업을 모든 당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44) 김정일이 제시한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107~118.

그는 당의 주체사상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74년 8월 평양체육관에서 한 달 동안 당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전국 당조직 일군 강습회’를 진행하면서⁴⁵⁾당의 주체사상화 방침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당건설에서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도록 하였으며 79년 4월에는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대책수립을 지시했다. 「선집 6」권 22번째 문헌인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8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김정일은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를 모든 당에 일반화하고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들을 혁신하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과 당에 충성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무렵 그가 한 연설과 담화의 주요 주제는 조직 및 사상사업과 관련한 것이었다. 5권에 수록된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1일), “당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28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6월 13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당조

45) 「로동신문」, 2001. 6. 18.

직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9일),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10월 22일),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일),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앨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4일),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2월 1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9일),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11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6월 30일),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도, 시, 군당 조직비서, 조직부장들을 위한 강습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16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30일), “당 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년 11월 8일) 등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따라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혁명사적·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왕재산과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건설하여 그것이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곧 모든 주민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에 항일유격대의 사업기풍, 학습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헌은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10월 22일) 등이다.

또한 김정일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진전이 있기를 원했다. 그가 ‘모두 다 속도전 앞으로!’라는 구호아래 속도전 방침을 제시하고 74년 10월 ‘70일 전투’를 직접 발의하여 전체 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경제정책 일선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70일 전투’를 통해 당창건 30주년 이전에 6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문헌이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9일),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

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76년 8월 11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9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6월 30일) 등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당의 전략적 노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는 3대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3대혁명소조’이다. ‘3대혁명소조’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잘 하도록 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무어진 소조”를 말한다.⁴⁶⁾ 이 조직은 73년 2월 13일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김정일은 이 해 9월 당조직비서가 됨으로써 이 조직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생산부문은 물론 과학, 교육 부문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75년 5월에는 이 운동을 당이 직접 관장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5권 3번째, 7번째, 11번째 문헌인 “당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28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4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688.

1975년 5월 2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등에서 이와 관련한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3대혁명에서의 진전을 위해 김정일은 75년 11월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동원방식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공업부문에서는 검덕광산 노동자들이, 농업부문에서는 청산리협동농장 농민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시범을 보이도록 했으며 이 운동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76년초부터 모든 단위들에서 전군중적인 토의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해 11월에는 이미 얻은 경험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교화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9일) 등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문헌이다.

북한은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에 들어갔다.⁴⁷⁾ 김정일은 78년 1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 것”을 당사업 방침으로 제시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달성을 촉구했다. 중국에서 실용주의노선이 추진되자 78년말에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여 주민들이 주체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47) 북한의 경제계획은 1개년계획(1947-1948), 2개년계획(1949-1950), 3개년계획(1951-1953, 1954-1956), 5개년계획(1957-1960), 7개년계획(1961-1970), 6개년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으로 수립되었다.

것을 요구했다. 6권 첫 번째 문헌인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1일)와 28번째 문헌인 “우리식대로 살아나갈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는 이와 관련된 문헌이다.

‘우리식’은 김정일의 관심이 지대한 문학예술부문에서도 계속 강조되었다. ‘우리식의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조와 발전이 추진되었고 주체의 확립은 문학,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무용, 교예 등 문예의 모든 부문에서 견지되어야 할 변함없는 원칙이었다. 5권의 31번째 문헌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7년 11월 4일)와 6권의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1일), “음악무용소품 창작에서 요구성을 높일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22일), “혁명연극의 새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국립연극단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6월 14일), “주체적 무용표기법을 완성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및 무용표기법 연구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음악무용소품들을 특색있게 만들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혁명가극 <피바다> 공연의 높은 수준을 견지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무대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2월 22일) 등에서 김정일은 무대배경, 대사, 조명, 소품, 화술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출판보도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4월 14일),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기자들과 한 담화, 1979년 11월 1일),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할 데 대하여”(당 및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9월 2일)는 이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김정일은 79년 10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의 전개를 직접 발의하고 이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6권 26번째에 실려있는 “당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을 밀고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7일)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후계자로 추대되어 국정의 전분야를 관장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인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은 이의로 적다. 1980년까지를 포괄하는 6권의 『선집』 가운데 대외적 문제를 언급한 문헌은 1권에 수록된 “신홍세력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외에 6권의 30번째 문헌인 “대외사업부문 일군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6일)가 유일하다. 전자에서는 “반제국주의 역랑과의 단결·강화”를 위해 북한이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 후자에서는 특히 대외사업부문 종사자의 사상적 무장을 주문하면서 주체사상을 해외에 널리 선전할 것을 강조했다.

3. 후계자의 공식화(1981~1990)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사실상 제2인자이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했다.

김정일은 당 제6차대회가 끝난 직후인 12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와 81년 4월 도당 책임비서협의회들에서 한 연설에서 “당 제6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 6권의 마지막 문헌인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12월 3일)와 7권의 3번째 문헌 “도, 시, 군 당위원회들 앞에 나서는 과업”(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이 그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60년대말부터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 형성과 모든 주민의 김일성주 의화를 적극 추진해 온 김정일은 김일성 생일 70주년을 맞아 김일성의 위대함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의 건립을 지시했고 김일성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이른바 ‘기념비적 건축물’을 김일성 생일 전에 건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일성저작집』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전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등 김일성의 혁명업적과 덕성을 수록했다는 각종 교양도서들을 출판하게 했고 집단체조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와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를 창작·공연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김정일은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당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간부들의 정치사상적 무장과 혁명적 규율의 확립, 당생활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고 일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더욱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했다. 7권에 수록된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선전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1981년 3월 8일), “당 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전국 당간부 양성기관 교원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6월 12일),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도, 시, 군 당위원회 청년사업부 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7월 13일),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4월 10일),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9월 7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3년 1월 14일) 등은 이 점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김정일은 85년 10월, 89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들에서도 주체사상원리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 등을 포함, 전체 주민들이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게끔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다.⁴⁸⁾

그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역할을 높이는 데는 당세포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당생활에 대한 당세포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

4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p. 56.

고 91년 5월에는 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를 개최하여 모든 당세포가 더욱 충성심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⁴⁹⁾ 그리고 94년 4월에도 전국 당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하여 당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을 강화·발전시키도록 지시했다.

또한 각급 당조직들이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병폐를 시정하여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아래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솔선수범하도록 하였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당사업의 출발점이자 목표로 삼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당과 대중을 연결시켜 주는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이 당의 영도를 따르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밑에 당의 영도를 충심으로 받아들이는 혁명적 기풍이 확립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8권에 실려있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4년 3월 10일),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직업동맹 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5월 3일), “근로단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 근로단체사업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30일), “농업근로자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농업근로자동맹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12월 14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등은 이와

49) 김정일, “당세포를 강화하자”(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81~118.

관련있는 문헌들이다. 특히 마지막 문헌에서 김정일은 당의 ‘군중노선 방침’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의 노력외에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달성에서 인민정권 강화 필요성을 인식,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인민정권의 주권적 기능을 높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집대성한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3권의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전국 인민정권기관 일군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은 당 6차대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80년대 속도’ 창조라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 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는 이 때 나온 것이다. 김정일은 특히 83년 4월과 84년 4월에는 서해갑문건설장을, 5월에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10월에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경제건설의 주요 대상들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근로자들이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독려했다.

김정일은 인민생활의 향상도 요구했다. 『선집 8』권 첫 번째 문헌으로 실려있는 바와 같이 그는 84년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인민생활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고 경공업혁명, 봉사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권의 20번째 문헌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3년 3월 2일)와 8권에 수록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

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8월 3일)도 유사한 내용의 문헌이다. 또한 김정일은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시의 창광거리에 현대적 주택을 건설한 데 이어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에 새로 현대적 주택을 짓도록 지시했고 지방도시와 농촌에도 주택을 대량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민들이 사회적 본성요구와 사회주의적 이념에 맞는 문화생활과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들의 시행도 지시했다. 9권의 13번째 문헌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1월 5일)는 이에 관한 문헌이다.

김정일은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3차 7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는 87년 1월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농장원들로 하여금 각각 꺾기대회를 갖게 한 데 이어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와 당 및 근로단체들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리고 87년 7월에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총동원대회를 소집하는 등 전체 주민을 계획완수에로 내몰았다.

그는 88년 2월 정권수립 40주년을 앞두고 ‘200일 전투’를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도록 독려했고 이 해 5월에는 전국영웅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하고 절약하도록 했다. 그는 이 시기 공업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농촌경리의 기업관리에서 집단주의원칙을 고수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는 9권의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5월 15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 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12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그는 사상혁명을 바탕으로 농업근로자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더욱 추진하도록 하였고 농촌문화혁명에 힘써 농업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그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촌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전당, 전군, 전민이 동원되어 서해안 일대의 ‘2천리 물길공사’를 단기간에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조속히 완성하고 전기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과 집행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농촌에서는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들의 조성”을 지시했다. 이러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90년대 속도’와 ‘우리식 사회주의총진군 속도’를 창조해야 하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전략을 철저히 실천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대중동원을 추진하는 한편, 김정일은 ‘사회주의문화건설’도 강조했다. 그는 「선집 8」권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84년 7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 교육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

선하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의 시행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과학기술연구사업의 발전을 촉구하면서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8권 13번째 문헌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가 그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영화, 연극, 가극에서의 꾸준한 혁명을 요구하면서 가극 ‘춘향전’을 가극에서의 본보기로 만들 것과 전자음악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키고 자모식 무용표기법을 완성하도록 지시했다. 8권의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9권의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1월 30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10권의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2월 25일), “무용예술론”(1990년 11월 30일), “음악 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등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문헌들이다.

북한에서 탁월한 사상이론가로 찬양되는 김정일은 80년대에도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을 심화시킨 저술들을 남겼다. 그 대표적 작품이 82년 3월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이다.⁵⁰⁾ 여기서 그는 주체사상 창시의 역사적 과정과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및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들을 밝히고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분석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김일성이 창시

5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43~216.

한 “주체사상을 새로운 원리와 내용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한 불후의 저서로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위대한 전투적 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⁵¹⁾

김정일은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주체사상에 관해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0월 25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근로자>에 준 담화, 1996년 7월 26일) 등을 저술했다. 이 각각은 8권 26번째, 9권 3번째, 10권 12번째, 14권 17번째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외에 현실에서의 실천적 문제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건설이론도 전개했다. 그는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년 10월 17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를 비롯한 여러 저술에서 ‘주체의 당건설이론’을 개진했다. 이들 문헌 역시 7권 13번째, 10권 10번째, 13권 10번째 문헌으로 찾아볼 수 있다.

5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p. 59.

4. 후계자의 시대(1991~1999)

북한은 1990년대 전후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하나는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로부터 야기된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와 사회통제기제의 이완 내지 무력화이다. 북한이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할 수밖에 없었으나 한반도에는 남한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호시탐탐 북한붕괴를 책동”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개혁·개방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때의 상황에 대해 북한은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 그에 따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의 격화, 이러한 가운데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고 하였다”고 요약했다.⁵²⁾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현실에 맞서 여러 문헌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과 세계혁명에 관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북한 주민들이 동요없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매진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공산주의건설의 기본 전략목표와 실현방안,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방법과 체계를 거론하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월하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역설했다. 7권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를 필두로 9권의

52)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인민은 불패이다,” 『로동신문』, 2001. 6. 21.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10권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11권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12권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13권의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1월 14일)와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4일) 등은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이러한 문헌들에서 김정일은 격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여 할 원칙들과 세계의 반제국주의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특징을 밝히고 현대제국주의 및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논증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그가 “사회주의 승리의 역사적 필연성과 그 실현방도를 밝히고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방식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완성하였다”고 평가한다.⁵³⁾

5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사전』, p. 61.

90년대초 대내외적 어려움에 당면해 있으면서도 김정일은 김일성 탄생 80주년을 맞아 『김일성전집』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김일성의 저술을 출판·보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와 부문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공연 ‘축원의 노래’와 집단체조 ‘수령님 모신 내 나라’를 창작·공연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창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건립하도록 했고 성대한 열병식과 사상 최초의 ‘전국노병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개최하게끔 했다. 이는 “군의 위력을 시위하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빛내어 나가는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⁴⁾

김정일은 93년 4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이전 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92년 4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가 되었다.

체제유지에 대한 대외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김정일은 그 타개책을 군대의 강화에서 찾고자 했다. 그는 전군 주체사상화 방침에 따라 군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전군에 주체적인 영군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주체전법을 발전시키며 전투훈련을 우리식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더욱 완비하도록 하고 군민일치를 달성하도록 했다. 13권 첫 번째 문헌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적 냉전종식의 영향을 받아 90년대초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김정일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방안을

5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p. 61.

고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남북, 해외의 친북세력을 연합하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김일성이 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남북관계개선안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외국군의 철수, 남북군축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하며 당국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표적 문헌으로서는 14권에 수록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1998년 4월 18일) 등이 있다.

김정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 여러 문헌에서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집권당과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된 원인과 역사적 교훈을 분석하고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반 원칙적 문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주의정당들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반제국주의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일찍이 83년 5월 발표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군비확장과 전쟁준비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다른 나라들에 있는 미제의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철수시키며 군사빨력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 확대”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⁵⁵⁾ 이어 그는 83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

55)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7』, p. 461.

자대회'가 반제국주의를 선언하도록 했고, 특히 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해 반제국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을 호소했다. 그는 88년 10월 12일 현 시대에서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2일)를 발표했다. 이 문헌은 9권에 실려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자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촉구했다. 그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우리 나라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핵의혹’에 대하여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강압조치까지 취하려 하고 있다”면서 추후도 동요하지 말 것을 역설했다.⁵⁶⁾

이러한 가운데 김일성이 사망하자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해 김일성의 통치노선을 고수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그는 13권에 수록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14권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당창건 5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95년 10월 2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등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56) 김정일,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17일), 조서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16.

의 위대성을 절감하고 김일성의 뜻을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회주의사상 무장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14권에 실려있는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에서 주민들이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양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했고 “혁명적 원칙으로 자본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분쇄하고 우리식의 건전한 사상과 문화생활 양식이 온 사회에 차 넘치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14권의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2월 26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등은 이와 관련된 문헌들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 3개월만인 97년 10월 당총비서에 취임했다. 3년 3개월 동안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수반과 당총비서가 없었고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통치해 왔다. 이는 일종의 ‘과도기적 국가 비상체제’였음을 의미하며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은 지속되어 오던 ‘과도기적 국가

비상체제'의 종료와 함께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을 뜻했다.⁵⁷⁾

김정일체제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신설한 헌법 서문을 통해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 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9월 8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명실공히 자신의 시대를 맞아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부딪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98년 1월과 3월에는 자강도와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위한 사회주의강행군에서의 노력”을 치하하고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새 세기의 대고조의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흥단군종합농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비롯한 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계속하면서 전체 주민이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따라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14권 33, 35번째 문헌인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량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0월 1일) 등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문헌이다.

김정일은 99년에도 연초부터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사는 사회주의강

57) 이찬행, 『김정일』, p. 841.

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14권 37 번째 문헌인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가 바로 그것이다.

IV. 결 론

명실공히 김정일 시대가 되면서 「김정일선집」의 문헌은 북한의 언론매체뿐 아니라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될 자료의 하나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북한의 1차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집」의 문헌을 소개하는 연구가 없어 본 연구는 이런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꾸어 보고자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문헌을 ‘료작’으로 지칭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을 힘들여 쓴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집」속의 문헌들은 김정일이 각종 분야 관계자들에게 특정 주제에 관해 지시하고 그들과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히 당관련 문헌은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읽기에 지루할 정도이다.

II장에서 시도한 주제별 문헌 증감에 대한 분석은 들인 노력에 비해 피상적인 성과만 있어 아쉬운 느낌을 가진다. 각 분야에서 문헌수의 증감을 뚜렷히 파악할 수 있을만큼 문헌의 절대수가 많지 않았고 「선집」 자체가 각종 분야의 문헌을 가능한 한 고르게 수록하고자 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문헌 주제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은 거의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선집」 문헌의 전반적인 특징을 소개한다는 점에 그 의미를 찾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의미있는 작업은 특정 주제의 문헌 내용을 시기별로 정밀하게 분석해 그 변화상을 추출해 내는 일일 것이다. 이를테면 김정일이 청년시절에 쓴 60년대의 문헌과 장성하여 사교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시절에 쓴 문헌의 내용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발견은 사고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그것과 북한정치사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이번에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다.

그 대신 북한의 특정 부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선집」 문헌들의 주제를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문헌을 배치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부록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집」의 문헌 가운데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는데, 특히 발표된 날짜가 1월이나 2월로서 새 해가 되어 김정일이 당 관계자들과 환담한 내용을 수록한 문헌의 경우는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한 주제로 분류하기 어렵다. 또한 예를 들면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도 언급하고 있어 어느 주제로 분류해야 할지 난처한 경우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부록 2>에서는 문헌을 주제별로 중복 배치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차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선집」 4권을 입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다. 연구를 기획하고 착수할 때만 해도 4권을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4권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선포되던 중요한 시기인 1974년 한 해에 발표된 문헌을 수록하고 있어 「선집」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이다. 때문에 평양에 가는 인사들과 북한서적의 판매를 대행하는 중국출판사에게도 부탁해 보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끝내 4권을 구하지 못했다.

4권이 빠짐으로 해서 결국 연구는 미완성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1999년까지 발표된 문헌을 수록한 「선집」 14권에 이어 북한은 앞으로 계속 「선집」을 출판할 것이고, 이 점에서 보면 「선집」의 분석은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북한이 그 출판을 완료할 때까지 본질적으로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애써 이 점을 위안으로 삼으며 4권을 포함시킨 보완작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남진외.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1995.
-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성철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1999.
-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1991.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리론과 선출」. 발행처 불명, 1989.
- 김정일.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화·고봉.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 동경: 구월서방, 1971.
- 외국문출판사. 「김일성저작색인」. 평양: 외국문출판사, 1991.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0.
-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략력」.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동지 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2. 논문

김정일.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월 27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정일. “당세포를 강화하자.”(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17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98.

리강섭.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권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최고봉의 권위.” 「철학연구」. 1999년 제1호.

이서행. “북한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2000).

3. 기타

「로동신문」.

「사회교육방송」.

「조선중앙방송」.

<부록 1>

『김정일선집』 수록 문헌 목록

* 괄호안의 숫자는 권수와 차례를 말한다. 예컨대 (05-20)은 『선집』 5권 20번째 문헌이다.

1권(1964~1969)

- (01-01)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과 한 담화, 1964년 4월 22일)
- (01-02)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임무”(조선중앙통신사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6월 12일)
- (01-03) “황해남도 농촌경리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황해남도 당 및 농촌 경리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8월 21일)
- (01-04)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조선인민군 2·8 영화 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5일)
- (01-05) “력사 유적과 유물보전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6일)
- (01-06)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10월 18일)
- (01-07) “혁명적인 문화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문학에

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10일)

- (01-08)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중심사업으로 전환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1월 8일)
- (01-09)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2월 15일)
- (01-10)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월 27일)
- (01-11) “신흥세력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 (01-12)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1월 26일)
- (01-13)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 데 대하여”(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6년 2월 7일)
- (01-14)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
- (01-15)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6일)
- (01-16)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17일)
- (01-17)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 (01-18)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6년 12월 27일)
- (01-19)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할 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1967년 2월 10일)
- (01-20) “상품공급사업을 개선 강화하자”(상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4월 7일)
- (01-21)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6월 7일)
- (01-22)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3일)
- (01-23)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 (01-24) “4.15문학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20일)
- (01-25)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30일)
- (01-26)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 (01-27)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 데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 (01-28)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7년 7월 30일)
- (01-29)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8월 16일)
- (01-30) “청년들은 농촌 테제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10월 8일)
- (01-31) “혁명가 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어야 한다”(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혁명가 유자녀들과 한 담화, 1967년 10월 12일)
- (01-32)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2월 2일)
- (01-33) “정치부 중대장의 임무”(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정치부 중대장과 한 담화, 1968년 3월 13일)
- (01-34) “대작 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예술영화 <형제들>의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년 4월 6일)
- (01-35)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량강도 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21일)
- (01-36)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과 한 담화, 1968년 10월 8일)
- (01-37) “음악창작 방향에 대하여”(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년 10

월 25일)

- (01-38)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11월 1일)
- (01-39)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 (01-40) “일군들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2월 25일)
- (01-41)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3월 24일)
- (01-42)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9년 4월 20일)
- (01-43)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4월 29일)
- (01-44) “인테리정책 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 잡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5월 29일)
- (01-45)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8월 12일)
- (01-46)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9월 27일)

2권(1970. 1~1972. 11)

- (02-01) “작가들은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영화 문학작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0년 1월 16일)
- (02-02)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년 2월 14일)
- (02-03)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 있게 그릴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의 담화, 1970년 2월 19일)
- (02-04)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4일)
- (02-05) “사회안전일군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29일)
- (02-06)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작가, 연출가들과 한 담화, 1970년 6월 18일)
- (02-07) “영화예술부문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0월 16일)
- (02-08)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 (02-09)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12일)
- (02-10)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년 2월 15일)
- (02-11) “우리 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4월 28일)
- (02-12) “당 일군은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5월 18일)
- (02-13)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1년 6월 14일)
- (02-14) “영화예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8일)
- (02-15)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혁명가극 <피바다> 창조 성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17일)
- (02-16) “영화예술부문의 당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당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3일)
- (02-17) “청년들을 계속 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일)
- (02-18)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1일)
- (02-19)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16일)

- (02-20)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에
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창조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8일)
- (02-21)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
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9일)
- (02-22)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2월 28일)
- (02-23) “4.25체육선수단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4.25체육선수
단 성원들과 한 담화, 1972년 6월 26일)
- (02-24)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1일)
- (02-25)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4일)
- (02-26) “텔레비죤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텔레비죤방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8월 22일)
- (02-27)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
- (02-28)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 1972년 10월 17일)
- (02-29)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 데 대하여”(국
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1월 7일)

3권(1973)

- (03-01)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월 28일)
- (03-02)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 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김일성군사대학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2월 8일)
- (03-03) “혁명가극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 데 대하여”(혁명가극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 모임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일)
- (03-04) “영화예술론”(1973년 4월 11일)
- (03-05)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7월 12일)
- (03-06)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7일)
- (03-07) “전당에 새로운 당 생활총화제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21일)
- (03-08)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9월 25일)
- (03-09)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

- 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제1차 전국예술인 학습경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년 11월 5일)
- (03-10) “당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1월 8일)
- (03-11) “사회주의적 민족교예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평양교예단 료해검해 사업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2월 8일)

4권(1974)

* 다음의 19편 가운데 17편 수록 추정

2. 19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전국 당선전일군들 강습회에서 한 연설)
2. 20 “당선전일군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2. 22 “사상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2. 28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르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4. 2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이론선전 일군들과 한 담화)
4. 9 “인민보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4. 14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4. 20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5. 7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사상적 무기이다”(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6. 10 “정무원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6. 22 “현시기 당내부 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8. 2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 당조직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8. 31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9. 4~6 “가극예술에 대하여”
 10. 1 “예술영화소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10. 9 “전당이 총동원되어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1. 6 “과학교육영화 촬영소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1. 7 “중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12. 6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당선전일군들과 한 담화)

5권(1975~1977)

- (05-01)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

- 과 한 담화, 1975년 1월 1일)
- (05-02)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20일)
- (05-03) “당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28일)
- (05-04)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자”(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건설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3월 18일)
- (05-05)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3월 25일)
- (05-06)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4월 30일)
- (05-07)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 (05-09) “현시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5년 5월 16일)
- (05-10)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6월 13일)
- (05-11)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 (05-12)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9월 10일)
- (05-13) “음악무용창작에서 당의 방침을 옳게 구현하자”(문화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조선인민군 협주단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5년 10월 5일)
- (05-14) “혁명가극 창조에서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문화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창조성원들과 한 담화, 1975년 10월 22일)
- (05-15)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 (05-16)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6일)
- (05-17)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9일)
- (05-18) “병원 관리 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6년 5월 1일)
- (05-19)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8월 11일)
- (05-20)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당리론선전 일군들과 한 담화, 1976년 10월 2일)
- (05-21)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10월 22일)
- (05-22)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76년 10월 23일)
- (05-23)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일)
- (05-24)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앨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4일)
- (05-25)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2월 1일)
- (05-26)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9일)
- (05-27)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11일)
- (05-28)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6월 30일)
- (05-29)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도, 시, 군당 조직비

- 서, 조직부장들을 위한 강습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16일)
- (05-30)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20일)
- (05-31)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7년 11월 4일)
- (05-32) “당 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년 11월 8일)
- (05-33) “글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7년 12월 12일)

6권(1978~1980)

- (06-01)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1일)
- (06-02) “로동행정규률을 강화하며 금요로동에 적극 참가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5일)
- (06-03)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1일)

- (06-04)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영화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영화보급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8년 3월 8일)
- (06-05) “음악무용소품 창작에서 요구성을 높일 데 대하여”(문학예술 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22일)
- (06-06)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4월 14일)
- (06-07)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5일)
- (06-08)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9일)
- (06-09) “혁명연극의 새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국립연극단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6월 14일)
- (06-10) “당 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7월 13일)
- (06-11)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78년 8월 1일)
- (06-12)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8월 22일)
- (06-13)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1월 10일)

- (06-14) “주체적 무용표기법을 완성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및 무용표기법 연구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 (06-15) “음악무용소품들을 특색있게 만들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 (06-16)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6일)
- (06-17)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25일)
- (06-18)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1월 6일)
- (06-19)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군단(군종, 병종), 사(려)단 정치부 선전선동부장회의 및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9년 2월 14일)
- (06-20) “혁명가극 <피바다> 공연의 높은 수준을 견지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무대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2월 22일)
- (06-21)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초급당총회에서 한 결론, 1979년 3월 19일)
- (06-22)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8일)

- (06-23) “당적 방법으로 사업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8월 17일)
- (06-24)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10일)
- (06-25)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비대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경비대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9년 9월 17일)
- (06-26) “당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을 밀고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7일)
- (06-27)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기자들과 한 담화, 1979년 11월 1일)
- (06-28)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
- (06-29)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1일)
- (06-30) “대외사업부문 일군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6일)
- (06-31)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1월 8일)
- (06-32)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0년 1월 8일)
- (06-33)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80년 1월 11일)
- (06-34)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을 따라 배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13일)
- (06-35) “예술선전대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각 도예술선전대 종합 공연관람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2월 23일)
- (06-36)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할 데 대하여”(당 및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9월 2일)
- (06-37)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9월 27일)
- (06-38)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12월 3일)

7권(1981~1983)

- (07-01)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선전이론회에서 한 결론, 1981년 3월 8일)
- (07-02)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전국 문화예술인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3월 31일)
- (07-03) “도, 시, 군 당위원회들 앞에 나서는 과업”(도당 책임비서협

- 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
- (07-04) “당 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전국 당 간부 양성기관 교원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6월 12일)
- (07-05)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도, 시, 군 당위원회 청년사업부 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7월 13일)
- (07-06)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근로단체사업부장 허정숙과 한 담화”(1981년 11월 18일)
- (07-07) “농촌경리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1월 24일)
- (07-08)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 (07-09)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4월 10일)
- (07-10) “축하문: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1982년 7월 10일)
- (07-11)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9월 7일)
- (07-12)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9월 9일)
- (07-13)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년 10월 17일)

- (07-14)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11월 13일)
- (07-15)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 (07-16)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전국 문학통신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15일)
- (07-17)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사법검찰 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 (07-18)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1982년 12월 15일)
- (07-19)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3년 1월 14일)
- (07-20)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3년 3월 2일)
- (07-21) “당경제부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3년 3월 3일)
- (07-22) “유능한 군사지휘간부들을 키워낼데 대하여”(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부장과 한 담화, 1983년 3월 9일)
- (07-23)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8권(1984~1986)

- (08-01)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 (08-02)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4년 3월 10일)
- (08-03) “인민군대는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조선인민군 창건 52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84년 4월 25일)
- (08-04)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 데 대하여”(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4월 28일)
- (08-05)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직업동맹 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5월 3일)
- (08-06)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중앙기관 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15일)
- (08-07)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22일)
- (08-08)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8월 3일)
- (08-09)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국토 관리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11월 19일)
- (08-10)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월 26일)

- (08-11)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조선인민군 지휘 간부들에 대한 군사칭호 및 훈장 수여식에서 한 연설, 1985년 4월 13일)
- (08-12)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21일)
- (08-13)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 근로단체사업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30일)
- (08-14) “민주주의 캄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 (08-15) “우리 시대의 영웅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인간의 전형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6월 15일)
- (08-16)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 (08-17)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8월 15일)
- (08-18) “당 선전부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5년 10월 23일)
- (08-19) “농업근로자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농업 근로자동맹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12월 14일)
- (08-20)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 (08-21)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 데서 나서는

-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3월 30일)
- (08-22)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 (08-23)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9일)
- (08-24)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31일)
- (08-25)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6월 27일)
- (08-2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 (08-27) “축하문 ; 금성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1986년 11월 4일)
- (08-28)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6년 11월 23일)

9권(1987~1989)

- (09-01)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집단체조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87년 4월 11일)
- (09-02)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 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 (09-03)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 (09-04)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1월 30일)
- (09-05) “선전일군들은 정책적 대를 세우고 일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7년 12월 15일)
- (09-06)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8년 1월 10일)
- (09-07) “봉사일군들 속에서 봉사성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 (09-08)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 (09-09)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5월 15일)
- (09-10)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 (09-11) “일군들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0일)
- (09-12)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2일)

- (09-13) “은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1월 5일)
- (09-14)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2일)
- (09-15)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 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6월 12일)
- (09-16)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9년 10월 26일)
- (09-17)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로동행정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 (09-18)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10권(1990)

- (10-01)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 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월 1일)
- (10-02) “당 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1일)
- (10-03)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연설, 1990년 1월 17일)
- (10-04)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

- 하자”(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2월 25일)
- (10-05)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4월 5일)
- (10-06)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30일)
- (10-07)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6월 2일)
- (10-08)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9월 13일)
- (10-09)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9월 20일)
- (10-10)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 (10-11)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0월 10일)
- (10-12)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0월 25일)
- (10-13) “무용예술론”(1990년 11월 30일)
- (10-14) “음악 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 (10-15)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11권(1991. 1~1991. 7)

- (11-01)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1년 1월 5일)
- (11-02)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 (11-03) “당세포를 강화하자”(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10일)
- (11-04) “건축예술론”(1991년 5월 21일)
- (11-05)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25일)
- (11-06)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창립 45돛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 (11-07)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창립 45돛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 (11-08) “음악예술론”(1991년 7월 17일)

12권(1991. 8~1992. 1)

- (12-01)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8월 26일)
- (12-02) “미술론”(1991년 10월 16일)
- (12-03)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 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 (12-04)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전국 혁명사적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 (12-05)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 (12-06)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 (12-07) “주체문학론”(1992년 1월 20일)

13권(1992. 2~1994. 12)

- (13-01)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 (13-02)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 (13-03)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 연구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 여”(4.15에 즈음하여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보고 경제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4일)
- (13-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17일)
- (13-05)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 (13-06)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 나서는 몇가지 문제”(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7월 22일)
- (13-07)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7월 23일)
- (13-08) “립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립업노동자절 30돐을 맞는 전국의 립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8월 10일)
- (13-09)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전국 도시경영부문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9월 4일)
- (13-10)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 (13-11)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 (13-12)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1월 14일)

- (13-13)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 일군들을 키워내자”(창립 45돐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 (13-14)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전국 인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일)
- (13-15)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청년 사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1월 5일)
- (13-16)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17일)
- (13-17)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26일)
- (13-18)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 (13-19)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1993년 3월 8일)
- (13-20)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11월 13일)
- (13-21)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혁명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월 1일)
- (13-22)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 (13-23)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 (13-24)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20일)
- (13-25) “감사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들에게”(1994년 10월 28일)
- (13-26)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 (13-27)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31일)

14권(1995~1999)

- (14-01)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 (14-02)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 (14-03) “축하문 : <광복의 천리길> 답사 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1995년 2월 3일)
- (14-04)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재일본조선인 총련협회 중앙상임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2일)
- (14-05)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8일)
- (14-06)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결성 40돛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서한, 1995년 5월 24일)
- (14-07)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 (14-08)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1995년 10월 2일)
- (14-09)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 (14-10)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 (14-1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6년 1월 20일)
- (14-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2월 11일)
- (14-13) “은 사회에 공산주의도덕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2월 26일)
- (14-14) “룡문대굴은 신묘하고 아름다운 지하명승이다”(룡문대굴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3월 26일)
- (14-15) “경제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 (14-16)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6일)
- (14-17)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근로자>에 준 담화, 1996년 7월 26일)
- (14-18)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 (14-19)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청년절 5돛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 (14-20)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돛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6년 10월 1일)
- (14-21)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 (14-22)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 (14-23)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월 24일)
- (14-24) “축하문: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 참가

- 자들에게”(1997년 2월 5일)
- (14-25)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 (14-26) “풀 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 (14-2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 (14-28) “양어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룡연군종합농장 룡정분장 양어장을 돌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6월 30일)
- (14-2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 (14-30)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9월 10일)
- (14-31) “구월산유원지는 후대들에게 물려 줄 조국의 귀중한 재부이다”(구월산유원지를 돌아 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9월 23일)
- (14-32)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 양성 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0월 12일)
- (14-33)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월 16일~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 (14-34)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 50돐

-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1998년 4월 18일)
- (14-35)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량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0월 1일)
- (14-36)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신천
박물관을 돌아 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1월 22
일)
- (14-37)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
일)
- (14-38)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9
년 9월 29일)

<부록 2>

주제별 문헌 분류

1. 정치

1) 주체사상

- (05-20)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당리론선전 일군들과 한 담화, 1976년 10월 2일)
- (07-08)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 (07-23)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 (08-25)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6월 27일)
- (08-2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 (10-06)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30일)
- (10-12) “주체철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0월

25일)

(14-17)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론잡지 <근로자>에 준 담화, 1996년 7월 26일)

2) 수령에 대한 충성, 이상화

(01-10)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 데 대
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
월 27일)

(01-31) “혁명이 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어야 한다”(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혁명가
유자녀들과 한 담화, 1967년 10월 12일)

(02-21)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
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9일)

(06-29)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
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1일)

(06-34)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을 따라 배우자”(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13
일)

(07-09)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당중앙위
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4월 10일)

(08-15) “우리 시대의 영웅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인
간의 전형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
화, 1985년 6월 15일)

- (08-17)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8월 15일)
- (08-24)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31일)
- (13-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17일)
- (13-23)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 (13-25) “감사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들에게”(1994년 10월 28일)
- (14-09)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 (14-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2월 11일)

3) 사회주의건설 강조, 반제투쟁,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찬양

- (07-12)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9월 9일)
- (07-23)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 (08-02)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4년 3월 10일)
- (09-02)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9월 25일)
- (09-03)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 (09-16)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9년 10월 26일)
- (09-18)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 (10-01)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 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월 1일)
- (10-06)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30일)
- (10-11)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0월 10일)
- (10-12)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0월 25일)
- (10-15)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

- 의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 (11-01)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1년 1월 5일)
- (11-02)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 (12-05)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 (12-06)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 (12-06)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 (13-02)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 (13-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17일)
- (13-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17일)
- (13-10)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 (13-11)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

-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 (13-12)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1월 14일)
- (13-13)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 일군들을 키워내자”(창립 45돛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 (13-16)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17일)
- (13-16)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17일)
- (13-18)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 (13-23)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 (13-26)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 (13-27)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31일)
- (14-01)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 (14-07)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

- 구이다”(1995년 6월 19일)
- (14-09)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 (14-10)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 (14-2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 (14-37)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4) 당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 (01-23)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 (01-27)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 (01-29)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8월 16일)

○당의 통일, 단결

- (05-21)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 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10월 22일)
- (06-18)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1월 6일)
- (07-11)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9월 7일)
- (08-10)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월 26일)

○당사업 일반(당의 강화, 발전, 영도, 건설, 조직문제 등 총괄)

- (02-16) “영화예술부문의 당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당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3일)
- (05-07)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 (05-10)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6월 13일)
- (05-15)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 (05-17)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도당

-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9일)
- (05-23)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일)
- (05-26)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9일)
- (05-28)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6월 30일)
- (05-30)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20일)
- (06-01)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1일)
- (06-08)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9일)
- (06-10) “당 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7월 13일)
- (06-12)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8월 22일)
- (06-17)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 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25일)
- (06-26) “당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을 밀고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7일)
- (06-31)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
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1
월 8일)
- (06-38)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12월 3일)
- (07-03) “도, 시, 군 당위원회들 앞에 나서는 과업”(도당 책임비서협
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
- (07-19)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
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
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3년 1월 14일)
- (08-06)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중앙기
관 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15
일)
- (08-20)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 (09-06)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8년 1월 10
일)

- (09-15)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 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6월 12일)
- (09-16)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9년 10월 26일)
- (10-01)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월 1일)
- (10-10)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 (10-11)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0월 10일)
- (11-01)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1년 1월 5일)
- (11-06)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창립 45돛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 (12-05)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 (13-10)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돛을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 (13-11)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 (13-16)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17일)
- (13-21) “당 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혁명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월 1일)
- (13-23)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 (14-08)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1995년 10월 2일)
- (14-22)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당정책 관철

- (05-32) “당 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7년 11월 8일)
- (06-07)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5일)
- (06-08)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9일)
- (06-22)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8일)

- (06-28)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

○당사업방법

- (01-08)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중심사업으로 전환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1월 8일)
- (01-40) “일군들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2월 25일)
- (02-22)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2월 28일)
- (05-03) “당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28일)
- (05-07)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2일)
- (05-15)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 (05-24)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앨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

- 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4일)
- (05-25)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2월 1일)
- (05-27)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11일)
- (05-29)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도, 시, 군당 조직비서, 조직부장들을 위한 강습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16일)
- (06-08)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9일)
- (06-23) “당적 방법으로 사업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8월 17일)
- (06-26) “당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을 밀고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7일)
- (10-10)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 (11-02)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당사상사업 강화

- (01-26)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

- 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 (02-05) “사회안전일군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29일)
- (03-06) “선전선동부의 기본임무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7일)
- (03-08)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9월 25일)
- (03-09)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제1차 전국예술인 학습경연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73년 11월 5일)
- (03-10) “당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1월 8일)
- (05-25)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2월 1일)
- (06-13)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1월 10일)
- (06-16)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6일)
- (07-01)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선전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1981년 3월 8일)

- (08-18) “당 선전부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5년 10월 23일)
- (08-2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 (09-05) “선전일군들은 정책적 대를 세우고 일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7년 12월 15일)
- (10-02)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1일)
- (11-03) “당세포를 강화하자”(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10일)
- (13-11)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 (14-07)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당생활 강화, 간부혁명화

- (02-08)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 (03-07) “전당에 새로운 당 생활총화제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21일)

(13-07)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7월 23일)

○당간부 양성

(07-04) “당 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전국 당 간부 양성기관 교원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6월 12일)

(08-27) “축하문 ; 금성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1986년 11월 4일)

(11-06)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창립 45돛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14-32)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 양성 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돛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0월 12일)

○당일군 자질 향상

(02-12) “당 일군은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5월 18일)

(06-37)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9월 27일)

○당일군 자세

- (06-21)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초급당총회에서 한 결론, 1979년 3월 19일)
- (07-21) “당경제부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3년 3월 3일)
- (09-10)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 (09-11) “일군들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0일)
- (13-22)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 (14-21)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당역사

- (07-13)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디>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년 10월 17일)

5) 인민정권

- (13-14)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전국 인

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일)

6) 사상교양

- (01-22)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
질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3일)
- (01-35)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량강도
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21
일)
- (01-45)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8월 12일)
- (12-04)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전국 혁명사적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 (14-36)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신천
박물관을 돌아 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1월 22
일)

7) 사법·치안

○사법검찰

- (07-17)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사법검찰 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치안

- (13-13)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
일군들을 키워내자”(창립 45돛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2. 경제

1) 경제건설 일반론

○경제정책 관철, 경제발전 촉구

- (05-19)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
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8월 11일)
- (06-08)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도
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5월 29일)
- (06-10) “당 안에 혁명적 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
설, 1978년 7월 13일)
- (08-14) “민주주의 캄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 (08-20)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 (14-15) “경제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

월 22일)

- (14-23)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월 24일)
- (14-30)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9월 10일)
- (14-33)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월 16일~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 (14-37)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경제관리, 관리체계, 관리방법

- (11-07)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창립 45돛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 (13-03)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 연구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4.15에 즈음하여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보고 경제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4일)

○경제계획화, 계획수행

- (02-18)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서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1일)

○증산·절약

- (05-11)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 (07-15)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 규율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3대혁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05-03) “당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28일)
- (05-11)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 (05-15)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1월 1일)
- (08-28)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6년 11월 23일)

2) 농림수산업

○농업, 농촌경리, 농촌혁명·개선

- (01-03) “황해남도 농촌경리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황해남도 당 및 농촌 경리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8월 21일)
- (01-30) “청년들은 농촌 테제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10월 8일)
- (05-02)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20일)
- (05-16)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6일)
- (06-33)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도당 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80년 1월 11일)
- (07-07) “농촌경리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1월 24일)
- (14-35)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량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0월 1일)

○임업

- (13-08) “림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림업노동자절 30돐을 맞

는 전국의 립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8월 10일)

○축산

(14-26) “폴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수산

(14-28) “양어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룡연군종합농장 룡정분장
양어장을 돌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6월 30일)

3) 광공업

○석탄생산

(06-13) “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
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1월 10일)

○경공업

(10-07)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전국경공업대회 참
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6월 2일)

(13-03)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 연구사업을 잘 할 데 대하
여”(4.15에 즈음하여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보고 경제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4일)

4) 인민생활 향상

- (01-09)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2월 15일)
- (07-20)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3년 3월 2일)
- (08-01)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 (13-24)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20일)
- (13-11)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 (14-33)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월 16일~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5) 과학기술

○과학기술

- (08-16)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 (12-03)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 과학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10월 28일)

○생산자동화

(03-01) “생산을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월 28일)

6) 기타

○상품공급

(01-20) “상품공급사업을 개선 강화하자”(상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4월 7일)

(08-08)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8월 3일)

○재정·금융

(10-08) “재정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9월 13일)

○자원개발

(11-05) “지질탐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전국 지질탐사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25일)

○국토관리

(08-09)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국토 관리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11월 19일)

(14-18)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노동행정규율 강화, 노동행정 개선

(06-02) “노동행정규율을 강화하며 금요로동에 적극 참가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5일)

(07-15)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율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09-17)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로동행정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9년 11월 27일)

○대외무역

(14-02)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3. 군사외교

1) 군사, 군사교육

(01-06)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10월 18일)

- (01-32)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2월 2일)
- (01-33) “정치부 중대장의 임무”(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정치부 중대장과 한 담화, 1968년 3월 13일)
- (01-39)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 (02-28)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 1972년 10월 17일)
- (03-02)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 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김일성군사대학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2월 8일)
- (05-01)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1일)
- (06-19)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군단(군중, 병중), 사(려)단 정치부 선전선동부장회의 및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9년 2월 14일)
- (06-25)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비대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경비대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9년 9월 17일)
- (07-22) “유능한 군사지휘간부들을 키워낼데 대하여”(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부장과 한 담화, 1983년 3월 9일)
- (08-03) “인민군대는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제도와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조선인민군 창건 52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84년 4월 25일)

- (08-11) “인민군대를 무적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자”(조선인민군 지휘 간부들에 대한 군사칭호 및 훈장 수여식에서 한 연설, 1985년 4월 13일)
- (13-01)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 (13-11)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 (13-19)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1993년 3월 8일)

2) 군수공업

- (06-24)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10일)

3) 외교

- (01-11) “신흥세력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5월 9일)
- (06-30) “대외사업부문 일군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6일)
- (07-23)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08-14) “민주주의 캄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13-10)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창건 47
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1992년 10월 10일)

4. 사회

1) 근로단체의 역할

(05-12)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9월 10일)

(05-22)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76년 10월 23일)

(07-06)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근로단체사업부장 허정숙과 한 담
화”(1981년 11월 18일)

(08-05)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직업동맹 일군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5월 3일)

(08-13)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당 근로단체사업부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30일)

(08-19) “농업근로자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농업
근로자동맹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12월 14일)

(08-27) “축하문 ; 금성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1986년 11월
4일)

2) 청년사업 개선, 청년교양, 혁명화

- (01-01)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과 한 담화, 1964년 4월 22일)
- (01-15)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6일)
- (01-30) “청년들은 농촌 테제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10월 8일)
- (02-17) “청년들을 계속 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사로청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일)
- (05-09) “현시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5년 5월 16일)
- (07-05)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도, 시, 군 당위원회 청년사업부 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7월 13일)
- (07-10) “축하문: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1982년 7월 10일)
- (09-12) “현대시대와 청년들의 임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2일)
- (10-03)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연설,

1990년 1월 17일)

- (12-01)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8월 26일)
- (13-15)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청년 사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1월 5일)
- (13-17)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2월 26일)
- (14-03) “축하문 : <광복의 천리길> 답사 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1995년 2월 3일)
- (14-1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6년 1월 20일)
- (14-19)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청년절 5돛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 (14-24) “축하문: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 참가자들에게”(1997년 2월 5일)
- (14-38)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9년 9월 29일)

3) 여성 혁명화 및 역할, 조직

○여성 혁명화 및 역할

- (02-24)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1일)

- (05-06)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4월 30일)
- (14-05)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8일)

○주부 조직·사상사업(동·인민반 사업)

- (02-24)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1일)

4) 도시경영

- (05-04)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건설 하자”(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건설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3월 18일)
- (08-21)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3월 30일)
- (13-09)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전국 도시경영부문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9월 4일)

5) 의료보건

- (05-18) “병원 관리 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6년 5월 1일)
- (08-12)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21일)
- (13-06)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 나서는 몇가지 문제”(보건 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7월 22일)

6) 사회운동

- (05-22)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76년 10월 23일)
- (09-09)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5월 15일)
- (14-25)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7) 생활질서·법규 준수, 도덕 존중, 봉사정신

○준법

- (07-18)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1982년 12월 15일)

○도덕

- (14-13) “은 사회에 공산주의도덕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2월 26일)

○봉사

(09-07) “봉사일군들 속에서 봉사성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5. 문화

1) 교육

(01-16)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17일)

(02-14) “영화예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8일)

(03-05)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7월 12일)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07-04) “당 간부 양성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전국 당 간부 양성기관 교원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6월 12일)

(08-04)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 데 대하여”(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4월 28일)

- (08-07)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22일)
- (08-27) “축하문 ; 금성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1986년 11월 4일)
- (11-06)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창립 45돛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 (11-07)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창립 45돛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7월 1일)
- (14-20)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돛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6년 10월 1일)
- (14-24) “축하문: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 참가자들에게”(1997년 2월 5일)
- (14-32)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 양성 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돛에 즈음하여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0월 12일)

2) 사회문화생활, 생산문화 개선

- (06-11)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78년 8월 1일)
- (06-36)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할 데 대하여”(당 및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9월 2일)
- (09-13) “은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1월 5일)

3) 인텔리 혁명화

- (01-44) “인텔리정책 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 잡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5월 29일)
- (10-09) “혁명과 건설에서 인텔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9월 20일)
- (13-07)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7월 23일)

4) 문학예술

- (01-07)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10일)
- (01-13)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 데 대하여”(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6년 2월 7일)
- (01-19)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할 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1967년 2월 10일)
- (01-24) “4.15문학창작단을 내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20일)
- (01-29)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8월 16일)

- (02-02)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년 2월 14일)
- (02-03)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 있게 그릴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의 담화, 1970년 2월 19일)
- (02-09)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12일)
- (02-10)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년 2월 15일)
- (02-19)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16일)
- (02-27)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데 대하여”(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
-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 (06-32)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0년 1월 8일)
- (07-02)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전국 문화예술인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3월 31

일)

- (07-16)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전국 문학통신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15일)
- (08-22)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 (09-04)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1월 30일)
- (12-07) “주체문학론”(1992년 1월 20일)
- (13-05)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 (14-16)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6일)

5) 영화, 연극, 가극

- (01-04)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조선인민군 2·8 영화 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5일)
- (01-14)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
- (01-18)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반미교양에 이바지하는 명작으로 완성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6년 12월 27일)

- (01-25)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30일)
- (01-34) “대작 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예술영화 <형제들>의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년 4월 6일)
- (01-36)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졸업생들과 한 담화, 1968년 10월 8일)
- (01-38)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11월 1일)
- (01-41)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과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3월 24일)
- (01-42)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9년 4월 20일)
- (01-43)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4월 29일)
- (01-46)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9월 27일)
- (02-01) “작가들은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영화문학작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0년 1월 16일)
- (02-02)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년 2월 14일)

- (02-06)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작가, 연출가들과 한 담화, 1970년 6월 18일)
- (02-07) “영화예술부문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0월 16일)
- (02-09)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영화문학작가들과
연출가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2월 12일)
- (02-10)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위대한 수
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결론, 1971년 2월 15
일)
- (02-11) “우리 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영화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4월 28일)
- (02-14) “영화예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8일)
- (02-15)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혁명가극 <피
바다> 창조 성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17일)
- (02-16) “영화예술부문의 당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영화예술부문
당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3일)
- (02-19)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위대한 수령
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16일)
- (02-20)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에
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창조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8일)
- (02-29)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 데 대하여”(국
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1월 7일)

- (03-03) “혁명가극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 데 대하여”(혁명가극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 모임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일)
- (03-04) “영화예술론”(1973년 4월 11일)
-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 (05-14) “혁명가극 창조에서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문화예술 부문 책임일군 및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창조성원들과 한 담화, 1975년 10월 22일)
- (05-31)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7년 11월 4일)
- (06-03)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1일)
- (06-04)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영화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영화보급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8년 3월 8일)
- (06-09) “혁명연극의 새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국립연극단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6월 14일)
- (06-20) “혁명가극 <피바다> 공연의 높은 수준을 견지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무대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2월 22일)
- (06-35) “예술선전대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각 도예술선전대 종합 공연관람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2월 23일)

- (09-08)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 (13-05)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6) 음악

- (01-21)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작곡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67년 6월 7일)
- (01-37) “음악창작 방향에 대하여”(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년 10월 25일)
- (02-27)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데 대하여”(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
-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 (05-13) “음악무용창작에서 당의 방침을 옳게 구현하자”(문화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조선인민군 협주단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5년 10월 5일)
- (06-05) “음악무용소품 창작에서 요구성을 높일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22일)
- (06-15) “음악무용소품들을 특색있게 만들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 (10-04)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 하자”(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2월 25일)
- (10-14) “음악 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음악예술 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8일)
- (11-08) “음악예술론”(1991년 7월 17일)
- (13-20) “민족음악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11월 13일)

7) 무용

-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 (05-13) “음악무용창작에서 당의 방침을 옳게 구현하자”(문화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조선인민군 협주단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5년 10월 5일)
- (06-05) “음악무용소품 창작에서 요구성을 높일 데 대하여”(문학예술 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3월 22일)
- (06-14) “주체적 무용표기법을 완성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및 무용표기법 연구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 (06-15) “음악무용소품들을 특색있게 만들 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8년 11월 30일)
- (10-13) “무용예술론”(1990년 11월 30일)

8) 미술

- (02-27)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데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창작가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9월 6일)
- (12-02) “미술론”(1991년 10월 16일)

9) 건축

- (11-04) “건축예술론”(1991년 5월 21일)

10) 관광자원 관리

- (14-14) “룡문대굴은 신묘하고 아름다운 지하명승이다”(룡문대굴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3월 26일)
- (14-31) “구월산유원지는 후대들에게 물려 줄 조국의 귀중한 재부이
다”(구월산유원지를 돌아 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7
년 9월 23일)

11) 체육

- (02-23) “4.25체육선수단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4.25체육선수
단 성원들과 한 담화, 1972년 6월 26일)
- (08-23)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9일)
- (09-14) “체육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 89년 6월 2일)

12) 언론(신문, 방송, 통신, 출판)

- (01-02) “조선중앙통신사의 기본임무”(조선중앙통신사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6월 12일)
- (01-17)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 (01-28) “방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67년 7월 30일)
- (02-13) “중앙방송위원회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71년 6월 14일)
- (02-26) “텔레비죤방송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텔레비죤방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8월 22일)
- (05-33) “글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7년 12월 12일)
- (06-06)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8년 4월 14일)
- (06-27)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기자들과 한 담화, 1979년 11월 1일)
- (07-14)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 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11월 13일)

13) 유적유물보전,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 (01-05) “력사 유적과 유물보전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6일)
- (02-04)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 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4일)
- (05-08)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5년 5월 6일)

14) 민족교예

- (03-11) “사회주의적 민족교예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평양교예단 료해검해 사업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12월 8일)

15) 집단체조

- (09-01)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집단체조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87년 4월 11일)

7. 통일

- (02-25)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4일)
- (07-12)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9월 9일)
- (08-14) “민주주의 캄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 (09-16)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9년 10월 26일)
- (14-2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 (14-34)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 50돐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1998년 4월 18일)

8. 조총련

- (01-12)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1월 26일)
- (05-05)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3월 25일)
- (10-05)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4월 5일)

(14-04)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2일)

(14-06)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서한, 1995년 5월 24일)